

제 7 회 태백문화연찬회

江原近代 민족운동의 역사적 照明

때 : 1992년 5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 춘천 Y W C A 대회의실

주최 : 江原日報社 附設 太白文化研究所
후원 : 光復會江原支部 · 春川報勲支廳

제 7 회 태백문화연찬회

江原近代 민족운동의 역사적 照明

때 : 1992년 5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 춘천 Y W C A 대회의실

주최 : 江原日報社 附設 太白文化研究所
후원 : 光復會江原支部 · 春川報勲支廳

目 次

舊韓末 江原道の 義兵鬪争	朴 漢 高.....7
	(江原大學校 教授)
江原道の 3・1運動	崔 承 洵19
	(江原大學校 教授)
民族教育의 歴史와 그에 대한 認識	金 興 洙29
	(春川教育大學 教授)
江原 東學運動의 高찰	金 永 琪41
	(江原日報 論說委員)

舊韓末 江原道の 義兵鬪爭

朴 漢 高*

目 次

- | | |
|------------------|--------------|
| 1. 江原道義兵의 歷史的 意義 | 3. 丁未義兵의 鬪爭 |
| 2. 乙未義兵의 鬪爭 | 1) 原州鎭衛隊의 蹶起 |
| 1) 春川地方의 義兵鬪爭 | 2) 柳弘錫義陣의 鬪爭 |
| 2) 原州地方의 義兵鬪爭 | 4. 結 語 |
| 3) 江陵地方의 義兵鬪爭 | |

1. 江原道義兵의 歷史的意義

異民族이 침입하여 자기의 財産과 生命을 약탈하고 자기의 自由와 主權을 유린할 때에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만일에 이러한 때에 군세게 항쟁하지 않는다면 그 民族은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하여 노예가 되고 결국 흡수 동화되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것이다.

우리 歷史에서 살펴볼 때에 이미 수천년 전부터 외침이 시작되어 近世에까지 무수한 國難을 겪었으며 투철한 抵抗精神과 강력한 鬪爭活動으로 이를 克服하고 우리의 民族과 歷史와 文化를 지켜내었으며, 특히 中國周圍에 무수한 民族이 나타나서 혹은 中國邊方을 침략하고 혹은 中國全體를 정복하여 數百年씩 지배했던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두 中國에 흡수·동화되어 歷史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존속하더라도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할뿐인데 비하여 우리 民族은 오늘날 南北이 분단된 반토막의 나라로서 世界 10位의 자리를 차지하는 발전을 이룩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舊韓末의 외침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國難이었다. 우리는 오직 東洋的 國際질서속에서 200餘年 平和의 분위기에 젖어있었던 형편에 西洋式 軍艦과 西洋式 武器를 가지고 처

*江原大學校 教授

들어오는 日本에게 꿈쩍없이 나라를 뺏기게 되었다. 日本은 1876년에 강제로 丙子條約을 맺어 우리나라에 발을 들여 놓은 후 우리나라를 “開化시켜 준다” “發展시켜 준다”는 구실로 깊이 간섭하더니 1894년의 淸日戰爭과 1904년의 露日戰爭으로 경쟁세력을 몰리치고 韓國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한후 韓國을 日本의 植民地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國民이 들고 일어나 外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 싸움을 벌이고, 또 나라를 뺏긴 후에는 國權을 찾으려고 치열한 獨立運動을 전개한 것은 우리 歷史上 外侵이 있을때마다 나타났던 전통이지만 舊韓末以來의 義兵鬪爭이나 獨立運動은 現在의 우리 歷史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이다.

後述하겠지만 江原道 義兵은 韓末義兵의 始發이 되는 것이다. 春川·원주·江陵 등지에서 義兵이 일어나 각지로 檄文을 보내어 蹶起를 촉구하고 또 江原道 義兵의 活動이 각지로 전파되게 되자 國民들에게 용기와 자극을 주어 全國적으로 義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舊韓末의 義兵鬪爭은 世界에 對하여 우리 民族의 氣概와 투철한 自主 獨立精神을 보여준 것이었으며 衆募不敵으로 日本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에는 獨立軍·光復軍 등 여러가지 형태의 獨立運動을 끈질기게 전개하여 世界 列強으로 하여금 韓國은 獨立할 자격이 있는 나라로서 기회가 되면 韓國을 獨立시켜야 한다는 認識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二次大戰中에 카이로宣言과 포츠담宣言으로 韓國의 獨立을 約束하였고 실제로 終戰後 即時 獨立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內容을 살펴볼 때에 舊韓末 江原道 義兵이 우리 近世史에 있어서 얼마나 重大한 意義를 갖는지를 理解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乙未義兵의 鬪爭

舊韓末의 義兵은 3기로 나누는 바 第1期義兵은 乙未義兵, 第2期義兵은 丙午義兵, 第3期義兵은 丁未義兵이다. 丙午義兵은 주로 忠南 閔宗植의 洪州義兵과 全羅道地方 勉菴 崔益鉉의 義兵이 中心이 되어 鬪爭한 것이므로 本稿에서는 乙未義兵과 丁未義兵을 中心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春川地方의 義兵鬪爭

1895年(乙未)에 倭人이 大關에 난입하여 閔妃를 虐殺하는 만행을 저지르니 이를 乙未事變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日帝의 만행은 全國을 격분케 하였고 특히 開港 자체를 반대하고 그동안 外國과의 非正常的의 관계에 대하여 끈질기게 비난해오던 儒林들은 더 참을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韓國人의 자존심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斷髮令을 내리자 드디어 각지에서 義兵이 일어나게 되었다. 韓末義兵으로서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1895年 10月 11日頃에 忠淸道 報恩에서 文錫鳳이 義兵을 募集하여 舉義討賊한다고 한것인데 그는 얼마후 官에 체포되고 말았으므로 실제로 義兵活動을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가장 먼저 義兵이 일

어난 것은 江原道와 江原道에 인접한 京畿道 砥平(楊平)이었는데 江原道에서는 春川·原州·江陵을 중심으로 蜂起하게 되었다.

原州의 義兵은 原來 砥平의 李春永·安承禹·金伯善(百先)등이 原州로 들어와 軍器 등을 거두어 가지고 忠淸道の 丹陽·淸風 등지를 공격한 것으로 陰曆 11月 下旬에 起兵한 것이었고 江陵의 義兵은 驪州의 儒生 閔龍鎬가 陰曆 12月初부터 原州·平昌·橫城 등지에서 軍士와 參謀를 모집하며 15日頃에 江陵으로 들어간 것인데 江陵에서도 이때에 이미 義所를 設置하고 있었다.

따라서 陰曆 11月 17日에 春川府를 占領한 春川義兵이 가장 빠른 義兵으로서 이는 韓末 義兵의 가장 첫 行動이었다고 할수 있다.

「開闢」誌 新刊 第1號 壽春山人(車相瓚)의 “關東民兵亂記”에서 그는 春川義兵이 韓末 義兵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라 하고 그 舉事日이 斷髮을 強行하기로 한 陰曆 11月 17日(陽曆 1896年 1月 1日) 새벽으로서 그들은 春川 觀察府와 郡衙를 占領하고 먼저 斷髮을 한 哨官 朴某를 軍前에 잡아내어 목을 쳐서 紅門 위에 매달았으며, 또 前 春川留守 閔某가 在任時에 貪虐하고 國事를 그르쳤다 하여 邑內에 있는 그의 生祠堂에 불을 질렀다고 하였다.

그런데 春川義兵이 처음 일어날 때의 주동자는 鄭寅會·成益煥·朴玄成의 3人이었다고 한다. 鄭寅會는 당시 27歲의 선비였는데 時局이 그릇되어감을 보고 분개하여 義兵 일으킬 뜻을 가지게 되었으며 斷髮令이 내리자 그는 軍人代表 成益煥과 商人代表 朴玄成과 함께 모의하여 각자 포섭하기로 하고 그는 儒林側의 연락을 맡기로 했다.

당시 春川에는 在來式軍隊 300名과 砲手 400名 등 約 700名의 兵力이 있었는데 哨官 朴某는 평소 軍人들 사이에 人心을 잃었을뿐 아니라 스스로 斷髮을 하였기 때문에 軍人들 사이에 信望이 있었던 成益煥이 중심이 되어 軍人들이 義兵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朴玄成은 春川邑의 商人이었지만 勇力과 膽略이 있으므로 그를 中心으로 春川邑의 商人등 市井人을 義兵에 가담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이 3人이 중심이 되어 義舉를 일으켜 春川邑을 점령하게 되자 그들은 春川郡衙에 義兵所를 설치하고 각처에 告示를 부쳐 民兵을 모집하니 불과 數三日 사이에 5~6千名이 모여 들었는데 이 때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중에 道袍儒巾의 儒生과 패랭이를 쓴 負商패와 노망태를 짊어진 山獵砲手와 木槍을 가진 農民등이 있었다고 한것이다. 여기에 舉事日에 앞장을 섰던 軍人들까지 합하면 春川義兵은 各界各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으킨 義舉였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들 3人은 義兵의 규모가 커지게 되자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를 능률적으로 지휘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學識과 德望을 갖춘 人物을 推戴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毅菴이 省齋를 따라 堤川으로 간후 春川에서 名望이 있던 習齋 李昭應을 大將으로 추대하고 自身들은 參謀가 되었으며 軍庫를 열어 一般民兵에게도 武器를 나누어 주고 訓練을 시켰다. 그리고 倭人의 앞잡이 曹寅承이 春川府觀察使가 되어 斷髮을

하고 赴任하여 오자 加平까지 義兵을 보내어 잡아다가 砲殺함으로써 크게 氣勢를 올렸다.

그후 春川義兵은 서울로 進擊하기 위하여 出發하였는데 그 행렬이 50리에 뻗쳤었고 加平邑에 이르러 서울에서 온 討伐軍과 접전하다가 패하여(2月6日) 春川으로 돌아왔는데 얼마후에 討伐隊가 春川으로 들어왔으므로 春川義兵이 四方으로 分散되게 되었다.

이때 李昭應은 春川을 떠나 加平·楊平을 거쳐 南漢山城으로 들어가 京畿義兵들과 함께 京城占領을 시도하는등 기세를 올렸으나 失敗하여 흩어졌다고 했는데 李昭應은 堤川으로 가서 毅菴陣에 合流하였고 한편 春川義兵은 李昭應의 從弟 李景應이 지휘하다가 역시 春川을 떠나 江陵陣을 거쳐 堤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成益煥·鄭寅會등도 嶺東·忠淸地方으로 가서 그곳 義兵들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로써 前期의 春川義兵活動은 시들해지고 말았는데 丁未年에 이르러 다시 全國的 義兵이 일어날 때에 春川에서는 毅菴의 再從兄인 畏堂 柳弘錫이 중심이된 義兵이 일어나 다시 치열한 義兵戰을 벌이게 된다.

2) 原州地方의 義兵鬭爭

原州地方의 義兵은 乙未年 陰曆 11月 28日 原州郡 地正面 安昌里의 延安金氏宗家인 金祚秀의 집 모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날 金祚秀의 집에는 砥平의 義兵將 李春永·安承禹·李弼熙·金伯善 등이 모여 義舉하기로 決定하고 29日날 安昌에서 起兵하여 數百의 義兵으로 原州로 진격하니 原州郡守와 官軍이 모두 도망하였으므로 쉽게 原州邑을 占領할수 있었다.

그들은 原州 官衙의 武器를 거둔후 잔치를 베풀어 義兵들의 士氣를 올렸다. 그리고 「堤川은 儒林이 모인 고을인데 郡守 金益鎭의 사발 독촉이 날로 심하여 다른 고을보다 혹독하니 마땅히 먼저 이 고을을 구원해야 한다」하고 義兵을 이동하여 陰曆 12月 3日에 堤川으로 들어갔다.

堤川에 모인 義兵將은 李弼熙·朱庸奎·徐相烈·李範稷·申芝秀·安承禹 등이었는데 이들은 크게 義兵活動을 전개하려면 全國의 名望과 學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하여 毅菴 柳麟錫을 大將으로 추대하고 中軍將에 李春永, 前軍將에 安承禹, 後軍將에 申芝秀, 先鋒將에 金伯善, 左軍將 元奎常, 右軍將 安成海, 參謀 朴青淳, 刺客 張忠植 등을 임명하니 이로써 安昌에서 시작된 原州義兵은 毅菴 柳麟錫의 堤川·忠州義兵으로 크게 확대 개편되어 全國義兵의 代表的 存在로 부각되게 되었다.

3) 江陵地方의 義兵鬭爭

乙未義兵 당시 江陵地方에는 地域에 기반을 둔 自體 義兵의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江陵義兵의 中心은 外部에서 들어간 閔龍鎬의 義兵이었다고 할수 있다.

閔龍鎬는 원래 驪州 출신의 선비로서 江陵地方과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었다. 대개 義兵將들은 자기의 연고지에서 氏族과 學脈 등을 기반으로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閔龍鎬는

아무 연고도 없는 江陵地方을 義兵活動地로 택한 것이다.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는 險한 地勢라고 할수 있다. 서울과 江陵 사이에는 太白山脈에 연하는 첩첩 산악이 가로막고 있어서 서울쪽으로부터의 공격은 염려 안해도 되는 그러한 地形이며 또 義兵活動을 하다가 不利하면 깊은 山속에 숨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遊擊戰을 벌이기에 좋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이 山岳地帶에는 사냥을 하고 사는 砲手들이 많아서 이들을 義兵으로 편입할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는 江陵地方을 비롯한 嶺東地方의 풍부한 人力과 物產이라고 할수 있다. 江陵은 地方行政機關中 최고위에 속하는 大都護府로서 人口가 조밀하고 物產도 풍부하였다. 또 江陵을 포함한 嶺東9郡은 모두 人口가 平地에 밀집되어 살고 있으며 그런대로 海岸쪽을 中心으로 平地가 있어서 農產物이 풍족하고 海產物도 풍부했다. 이러한 풍부한 人的·物的資源은 義兵을 모으고 活動하는데 有利한 조건으로 보였을 것이다.

셋째는 그 北쪽에 元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元山은 開港地로서 여기에 日本人이 많이 居住하고 있었고 또 많은 物資를 集散하는 곳으로서 뚜렷한 攻擊目標이 있었고 따라서 義兵活動의 效果를 極大化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元山附近은 關北·關西·關東·서울등 각 地方으로 모두 通達할수 있는 地理的인 要衝이었으므로 만일 元山만 占領한다면 그 效果는 이루 말할수 없이 큰것이었는데 이는 실제로 江陵義兵이 元山攻略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아 확인할 수가 있다. 閔龍鎬는 陰曆 12月 初에 原州로 들어와 軍士를 모아 義兵의 形態를 갖추고 다시 平昌으로 들어가 義兵과 參謀를 보강한 후 15日頃에 江陵에 도착하였다. 이때에 江陵에서는 이미 義陣을 차리고 數千名의 義兵이 모여 있었으므로 서로 疑心하여 긴장감이 감돌고 서로 충돌할 위험성이 있었으나 閔龍鎬의 名分論과 智謀와 鬻장으로 얼마 후에는 江陵 自體의 義兵을 흡수하게 되는데 대체로 年末까지는 江陵一圓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그는 北쪽으로 襄陽·杆城·高城·通川·歙谷·安邊까지, 南쪽으로는 旌善·三陟·蔚珍·平海·興海까지, 西쪽으로는 麟蹄·楊口·狼川·淮陽·平康·金化·金城까지 召募士를 보내어 軍士를 募集함으로써 엄연한 한 地方勢力을 形成하는듯 했으며 심지어는 安東人士들에게까지 軍務帖을 發行하기도 했다.

閔龍鎬는 勢力基盤이 자리잡히고 襄陽·杆城·高城·通川·歙谷이 그의 統制下에 들어오자 드디어 元山을 攻擊하기로 하고 正月 21日에 2,300餘名을 거느리고 江陵을 出發하여 襄陽·杆城·高城·通川을 거쳐 2月 初4日에 安邊의 仙坪市에 도착하니 元山港에서 80里 떨어진 곳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비를 만나 다음날 밤까지 그치지 않았는데 2月 6日에 倭兵의 기습을 당하여 난전이 벌어졌다. 결국 武器가 시원치않은 義兵이 敗戰하여 通川으로 퇴각하니 士卒은 太半이나 흩어진 상태였다. 그들은 淮陽·楊口를 거쳐 五色嶺(寒溪嶺)을 넘어 江陵으로 돌아와 다시 義陣을 정비하였다.

그후 4月에 서울에서 討伐隊가 도착하였으므로 閔龍鎬의 義陣은 三陟·襄陽·高城·淮陽

등지에서 戰鬥을 하며 親日勢力을 응징하였고 黃海道 谷山을 거쳐 平安道로 北上했다가 咸鏡道로 가서 咸興義兵과 함께 咸興을 장악하였으나 元山에 있던 倭軍에게 被襲되어 다시 北上 豆滿江을 넘어 滿洲地方으로 가서 再起를 도모하게 되는데 이로써 閔龍鎬의 江陵義陣活動은 끝이 나게 되었다.

3. 丁未義兵의 鬪爭

그후 1906년의 丙午義兵을 거쳐 1907년에 이르러 다시 全國의인 義兵이 일어나니 이를 丁未義兵이라 한다. 丁未義兵의 특징은 倭人에 의하여 강제로 解散당한 韓國의 正規軍이 義兵의 核心을 이룬 것으로서 따라서 戰鬥가 치열하고 倭兵의 피해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1907年 陽曆 6月~7월에 海牙密使事件이 일어나자 日本은 그 責任이 高宗皇帝에게 있다 하여 強制로 高宗을 退位시키고 皇太子를 卽位시키니 이가 純宗皇帝이다. 皇帝讓位에 격분한 群衆은 각처에서 倭警과 충돌하였고 侍衛隊軍士들은 兵器를 들고 나와 倭人을 습격하였고 李完用의 집은 소각되었다.

이어서 日帝는 韓日新協約(丁未七條約)을 강제로 체결하여 韓國의 行政權을 빼앗고 또 8月에는 日帝의 韓國併呑에 방해가 될 韓國軍隊 解散式을 거행하니 이에 분개한 參領 朴星煥이 自決하였으며 이에 격앙한 侍衛步兵第1聯隊第1大隊 및 第2聯隊 第1大隊軍士들이 궤기하여 倭軍과 戰鬥을 벌였고 그후 각지로 흩어져서 丁未義兵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어 日帝는 地方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鎭衛隊도 비밀히 解散시켜 兵器를 회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原州와 江華등 몇곳의 鎭衛隊는 미리 눈치를 채고 兵器를 가진채 義兵을 일으켰는데 그중 규모가 크고 격렬한 運動을 전개한 것은 原州鎭衛隊였다.

1) 原州鎭衛隊의 蹶起

8月1日 서울에서 韓國軍을 해산시킨 日帝는 지방에 있는 8個 鎭衛隊도 해산시키기 위하여 8月 3일부터 24일까지 해산일정을 비밀리에 짜놓고 있었다. 江原道內에는 鎭衛第5大隊 본부가 原州에 있어 參領 이하 將校가 10名, 下士兵卒이 251名이었고 分遣所가 江陵에 설치되어 副尉이하 50名이 주둔해 있었다. 日帝에 의하여 짜여진 비밀 해산일정이 原州는 8月10日, 江陵은 13日로 내정되어 있었다.

8月1日날 原州鎭衛隊長 洪裕馨參領이 서울 軍部の 傳令에 따라 上京하자 大隊長代理 正尉 金應濟와 特務正校 閔肯鎬는 해산의 눈치를 채고 兵士들과 함께 봉기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8月 5日 原州鎭衛隊兵士 250명은 일제히 봉기하여 一般 市民과 함께 武器庫를 탈취하여 小銃 1,600餘挺과 彈丸 4萬發을 兵士와 市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義兵들은 原州郵便取扱所·原州郡衙·警察分署·倭人과 그들의 家屋을 공격하였으며 一般市民의 호응을

받아 原州邑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原州鎮衛隊가 봉기하자 日帝는 忠州 警察支部에 打電하여 警察隊를 原州에 派遣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忠州의 日軍守備隊長 宮二小尉는 19名의 경찰대를 거느리고 午後 3時 原州로 침투하려 했지만 原州義兵에 의해 2時間동안 交戰後 격퇴당했다. 日本軍은 原州 西쪽 南山에 숨어있던 日本 居留民 9名과 警官 5名을 데리고 忠州로 퇴각했다. 이에 8月 6日에 서울에서 日本軍 步兵 47聯隊의 步兵 2中隊, 機關銃 4門, 工兵 1個小隊로 1支隊를 편성 8月 10日에 原州에 도착시켰는데 原州義兵은 그 2日前인 8日에 原州 교외로 철수하여 그중 일부는 大隊長代理였던 金惠濟를 따라 平昌·江陵 方面으로 가서 襄陽·杆城·通川 지방 義兵과 협력, 크게 활약했으며 鎮衛隊兵의 主流는 閔肯鎬의 지휘아래 堤川·忠州·竹山·長湖院·驪州·洪川 등지에서 倭軍을 격파하였다. 한편 原州 소식을 들은 驪州 鎮衛隊 兵士들은 8月 6日에 봉기하여 原州鎮衛隊에 合流하였다.

이에 8月 12日 200名으로 편성된 閔肯鎬 부대는 驪州를 기습하여 警察分遣所를 포위 공격한 후 日警과 日人을 처단하고 武器를 접수했다. 그리하여 陰竹을 거쳐 長湖院에 이르렀을 때는 義兵의 수가 數千名에 이르게 되었으며 15日에는 竹山에서, 16日에는 長湖院에서 倭軍을 사살하고 日人을 처단했다.

閔肯鎬의 義兵部隊가 크게 위세를 떨치자 日軍은 步兵 第51聯隊 2大隊, 第52聯隊 2中隊, 機關銃 4挺, 騎兵 1小隊로 支隊를 편성, 이곳으로 급파하여 이에 대항케 하였으나 義兵部隊는 遊擊戰術로 곳곳에서 倭軍을 쳐부셨으며, 20日에는 長湖院 東南方 10里에서 倭軍을 공격하고, 23日에는 驪州 南漢江 하류에서 공격하였으며 8月 하순에는 李康季部隊와 忠州 공략을 계획하여 800名의 閔肯鎬 부대는 堤川·淸風·주포에서 忠州로 진격, 23日 午前 11時 30分부터 忠州공격을 시작 적에게 큰 타격을 주고 長湖院으로 퇴각하였다.

또 9月 7日에는 600名의 閔肯鎬 부대를 2個로 나누어 洪川을 습격했고, 9月 10日에도 200名이 재차 洪川을 기습하는등 적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같은 날 400名의 義兵이 華川郡衙를 기습, 銃器와 彈藥을 접수했다. 9月 20日에는 春川 南方 10里의 鼎足里 부근에서 300義兵이 倭軍과 격전을 벌였고, 23日에는 橫城郡 鳳腹寺에서 350義兵이 倭軍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10月 26日에는 300義兵이 橫城郡 屯村에서, 11月 27日에는 200義兵이 洪川 陽德院에서, 12月 8日에는 70義兵이 原州 鶴谷에서 倭軍과 격전을 벌여 閔肯鎬 義兵部隊의 勇맹을 떨쳤다. 이와 같은 閔肯鎬 部隊의 활약으로 關東·湖西·嶺南에서 크게 활약하던 義兵將들에게 크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 의병 항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게 되었다.

그런데 1908年 2月에 閔肯鎬 부대가 原州 衣冠里 벌판 戰鬪에서 倭軍을 크게 격파하였으나 倭軍의 반격이 심하여 閔肯鎬가 부상당하였고 불행하게도 2月 29日 橫城郡 講林 東쪽 10里되는 登子時에서 倭兵에게 체포되어 사살되고 말았다.

애석하게도 閔肯鎬 義兵將은 戰死하고 말았지만 義兵들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활동을 계속하여 民族의 저항정신을 크게 빛냈던 것이다.

이밖에 丁未義兵時 原州義兵으로 李殷瓚·李九載(本名 李求采)·金思昇 등의 活動이 있었

으나 이에 대해서는 後日로 미루고자 한다.

2) 柳弘錫 義陣의 鬪爭

丁未義兵 鬪爭時에 春川에서는 畏堂 柳弘錫이 중심이 된 義兵活動이 전개되었다. 처음 乙未義兵 때 春川에서 義兵이 일어나 李昭應을 大將으로 추대하고 활동을 벌일때 柳弘錫도 이에 참가하여 함께 싸웠는데 얼마후 義兵이 敗하여 흩어지게 되자 畏堂은 堤川으로 가서 再從弟인 毅菴 柳麟錫의 義陣에 가담하여 毅菴을 도와 크게 활약하였다. 毅菴의 義陣은 堤川·忠州·丹陽·平昌 등지에서 크게 활약하여 親日官吏들을 죽이고 또 鳥嶺 아래 安保站(수안보)에 있는 倭兵의 兵站을 습격하여 크게 승리하는 등 전과를 올렸으나 敵의 공격이 점차로 강화되면서 毅菴 휘하의 李春永·朱庸奎·安承禹·洪思九 등이 戰死하는 등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毅菴은 용맹한 人士들이 많은 西北地方으로 가서 다시 擧義하기로 하고 出發하였으나 중도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드디어 遼東으로 亡命하여 義兵을 다시 일으키기로 했다.

毅菴·畏堂 등 일행은 1896年 8月 20日에 鴨綠江을 건너 淸나라 遼東으로 들어갔으나 滿洲에서의 義兵計劃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毅菴과 畏堂은 1897年에 歸國했고 畏堂은 春川 南面 鉢山里 恒谷으로 돌아와 그 후 한동안 親戚과 後進들을 계몽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 후 1907年에 丁未義兵이 일어나자 畏堂도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族叔인 恒窩 柳重岳·午川 柳重洛, 族弟인 敬窩 柳鳳錫 등과 모의하고 柳寧錫·柳濟坤·朴善明·朴華芝(枝)등과 함께 義兵 600餘名을 모아 柯亭里 「여우내골」에서 義兵訓練을 한후 春川 陣兵山과 衣岩所, 加平 珠吉里 등지에서 倭敵과 싸우는 등 치열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때에 부근의 宗族과 마을 住民들이 男女老少없이 나서서 軍資金과 軍糧등을 거두고 또 火藥과 彈丸을 만들어 畏堂의 義兵活動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나 柳寧錫이 敗하여 戰死하고 또 畏堂도 부상을 입었으므로 나머지 義兵을 정비하여 金魯洙에게 인계하고 長潭으로 가서 상처를 치료하며 다시 軍士를 모아 義兵을 일으키려 했지만 강력한 倭兵의 공격으로 각처의 義兵이 모두 흩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1910年에 國恥를 당하자 畏堂은 「怨讐 오랑캐의 統治下에서는 살수 없다」하고 家族과 함께 遼東으로 亡命하여 光復을 도모하다가 1913年 12月 21日에 滿洲 懷仁縣 大雅河 春柳頭 南山 居第에서 돌아가니 享年이 73歲였다.

4. 結 語

丁未義兵 당시 原州와 春川 이외에 江陵을 중심한 嶺東地方에도 義兵活動이 있었다. 즉 이해 11月 27日에 朱光錫·朴華南·朴乃益 등 義兵將이 이끄는 約千名의 義兵이 江陵 守備

隊와 戰鬪를 하였고 28日에는 蔚珍·三陟의 義兵이 北上하여 江陵附近에서 戰鬪를 했으며 12月 28日에는 閔肯鎬 隸下の 韓甲福·崔燉鎬 등의 義兵 約 600名이 공격하였으나 江陵邑 內까지는 進入하지 못했다.

또 1908年 6月 15日에는 당시의 江陵郡 連谷面 靑鶴洞(지금의 小金剛)에서 李康季의 義兵 150名이 倭軍과 戰鬪를 하였고 그달 25日에는 新里面(지금의 注文津邑) 長德里에서 崔燉鎬의 義兵이 倭軍과 交戰하였다.

한편 襄陽에서는 丁未年 8月 17日에 禹守吉의 義兵 300名이 交戰 끝에 襄陽邑을 占領하였고 11月 3日에는 朴華南·朱光錫의 義兵이 倭軍과 交戰하고 역시 襄陽邑에 進入하였으며 1908년에는 李康季의 義兵 300名이 倭軍과 交戰하였다. 이밖에도 蔚珍·杆城·高城·歙谷 등 지에서도 맹렬한 義兵活動을 전개하여 倭軍에게 피해를 주는 등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는바 이러한 江原道義兵의 活動은 全國 各道中에서 가장 치열한 鬪爭을 보여준 것이었고 또 全國義兵中에서 가장 먼저 봉기하여 全國義兵의 봉기를 先導하였으므로 舊韓末以來의 義兵鬪爭과 그에 連繼되는 獨立運動史에 있어서 重大한 意義를 갖는다고 하겠다.

江原道の 3.1運動

崔 承 洵*

1. 緒 言

3.1運動을 우리民族의 舉族的인 抗日運動이라고 一般的으로 그 概念을 規定하고 있으나 이러한 意義 外에도 民族史의 한 轉換点이라는데 抗日運動에 못지아니 할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看過할 수 없다.

우리民族의 散發的 抗日運動은 乙巳年에서 부터 이미 시작하여 庚戌國恥 前後하여서는 京鄕各地에서 더러는 自決로 그 울분을 吐했고 더러는 무리를 지어 義兵活動을 通하여 喪失한 國權의 回復을 꾀했다. 前者는 ‘二千萬國民에게 告함’이라는 遺書를 남기고 自決한 閔忠正公을 비롯하여 自決에 臨하여 絶命詩를 남긴 黃梅泉과 같은 사람이 그 表象일 것이고 後者의 경우는 華西學派의 春川 儒林의 義兵活動이 있다. 乙巳年 이후 散發的이기는 하지 마는 이러한 살아 있는 民族의 꿈틀거림이 있었기에 自主民族으로서의 氣概가 世界에 誇示되었고 이러한 散發的 義舉가 民族正氣로 集約되어 民族의 意志로 昇化한 것이 3.1運動이다. 따라서 3.1運動은 그 意義가 單純한 抗日運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民族意志로 昇化시킨 歷史의 轉換点이라는데도 큰 뜻이 있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3.1運動을 民族의 舉族的 抗日運動 또는 創造的 民族意志에 의한 歷史的 轉換点이라 보려는데 異義가 있을 수 없으나 이 運動을 계기로 한 自省的 側面에서의 意義도 賦與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19世紀에 접어들어 西歐勢力의 東漸이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의 우리나라나 日本의 形便이 近代化 되지 못하고 있기는 비슷하였다. 美國의 太平洋함대 司令官이 太平洋함대를 이끌고 日本의 浦賀에 碇泊하여 日本에게 開港을 要求할 때의 우리나라나 日本의 事情은 別로 다를것이 없었다. 그러던것이 그들은 開化에 拍車를 加하여 近代化를 서둘렀고 우리는 鎖國에 安住하다 보니 彼此間 國力의 差異가 생겨 그 참담한 異民族의 箝制를 받게 되었다. 19世紀는 西歐列強들의 帝國主義風潮가 東洋을 휩쓸고 있을 때다. 弱肉強食을 宗旨로 삼고 있을 時代狀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그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3.1運動이 舉論될 때면 반드시 自省되어져야 할 歷史的 當爲가 우리에게는 있다.

*江原大學校 教授

日帝가 우리에게 지은 罪相은 이루다 表現 할 길이 없다. 다른것은 고사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착취하기 위하여 만든 東洋拓植會社를 비롯하여 墓地令 森林令 酒稅令 煙草稅令 등 하나 하나 枚擧할 겨를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宗教問題에까지 그 마수를 뻗쳐 ‘朝鮮寺刹令’까지 만들어 韓國佛敎를 異質化시켰다.

日帝의 이러한 탄압과 착취에서 몸부림 치다 많은 義士들이 殉國하거나 國外로 亡命하였고 乙巳以後 國內外에서 하루도 抗日운동이 끊겼던 날이 없다가 마침내 이 民族意志를 集約시킨것이 3.1運動이다. 앞서도 잠깐 言及하였지마는 3.1運動이 論議되면 우리는 먼저 어찌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절통한 狀況에 이르렀으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잘못은 없었던가를 自省할 必要가 있다. 韓日合併은 全的으로 帝國主義 日本의 侵略行爲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異見을 달 韓國사람은 없겠으나 이것을 앞세워 우리에게는 一沫의 責任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나라 잃는 罪에 대한 責任을 지지 아니하려는 愚를 저지르게 된다. 우리에게도 나라를 지키지 못한 큰 歷史的 責任이 있다. 이 歷史的 責任의 一部나마 떠맡아 보겠다고 우리의 先烈들은 抗日運動을 했고 及其也는 그 責任을 痛感한 나머지 自決이라는 方法을 擇했던 것이다. 만약에 乙巳年 이후 한사람도 日帝에 抗拒한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도 自決한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歷史를 責任질줄 모르는 歷史 속에 自存하는 民族이 아니라 歷史 밖에 던져진 民族이라는 조소를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日帝의 罪惡이야 더 말할 必要도 없이 엄청난 것이지만 나라를 빼앗기고도 그것이 日帝 탓이지 우리에게 罪가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3.1運動은 우리民族이 우리歷史에게 지는 罪를 歷史에게 償還한다는 큰 뜻이 있고 그러기에 그 運動과 그 精神은 비길데 없이 崇高한 것이며 이 運動으로 해서 우리는 世界에서 제 歷史를 責任지려는 意志가 있는 民族으로 대접 받았던 것이다. 우리는 3.1運動을 舉族的 抗日運動에만 焦點을 맞추지 말고 視野를 좀 넓혀 이 運動의 民族史的 性格도 함께 생각할 必要가 있다.

江原道 3.1運動의 밑 뿌리는 1895, 6年, 卽 甲午 乙未의 斷髮令 前後했을 때의 義兵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江原道에서도 春川을 中心한 儒林들은 畿湖學派의 學脈을 이은 華西學統으로 이 學統의 儒林들의 行蹟의 特徵은 毅庵과 그 流派들에게서 찾을 수 있듯이 激烈한 行動主義者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難局을 當하였을 때의 선비의 처신을 類型別로 찾아 보면 대체로 세가지 類型이 있다. 그 첫째는 앞에서 잠깐 言及된바 있는 선비가 설 땅이 아니라고 생각 되었을 때 自決로 終天하여 義와 生死를 같이 하는 類型이 있다. 이런 類型에 對하여는 敢히 용케치 아니하는 것이 義를 지키는데 대한 살아 있는 사람의 禮이다. 다음은 春川을 中心한 毅庵과 같은 行動主義者들을 들수 있다. 이 類型의 선비는 살고 있는 社會가 義롭지 못하면 힘으로도 義로운 社會로 만들자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선비가 살만한 社會가 아니면 선비는 그 社會를 피하여 숨어 살아야 한다는 類型이다. 이 가운데 江原道 地域에 影響을 크게 준것은 두번째의 行動主義的 선비이다. 이 行動主義를 宗旨로 하는 思想이 이 고장을 義兵의 고장으로 만들었고, 이 義兵精神의 脈統을 歷史意識化한 것이 강원도의 3.1運動이다. 따라서 3.1運動은 그에 앞선 義兵運動과 그 脈統을 함께

하고 있으며 같은 江原道內에서도 地方에 따라 烈度나 희생자의 차이는 다르다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愛國精神의 厚薄에서 온 結果라고 할 수는 없다.

2. 宣言文의 傳達

3.1運動에 가담했던 大衆은 어느 特定한 集團에 局限 되었던 것이 아니고 全民族의 運動이라는데 그 歷史的 意義가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나 그렇다 하여 이 거창한 運動이 아무런 組織이나 촉매제 없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그 촉매제 역할을 해 준 集團이 宣言書 끝에 署名 되어 있는 民族代表들이고 이 集團은 天道教를 위시하여 기독교 불교도들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이 集團의 性分이 이러하기 때문에 各 地域에서의 運動에도 그 主導者는 天道教人과 기독교인이 많았고 이 運動의 表象은 ‘獨立宣言書’이다.

서울에서의 3.1運動은 3月 1日에 일어났으나 地方은 당시의 交通事情 人員動員 問題 日帝의 감시등 여러가지 條件 때문에 서울과 같은 날 일어나지 못하고 地方에 따라 다르다. 앞서도 말 한바와 같이 3.1運動의 核은 宣言書이고 이 宣言書가 江原道에 언제 들어 왔느냐는 것이 곧 江原道の 3.1運動의 發端이 된다.

당시에도 江原道廳은 春川에 있었으므로 宣言書도 春川에 가장 먼저 왔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各 郡으로 分布되는 것이 順序로 생각되나 당시 春川은 아직도 京春鐵道가 부설되지 아니하여 交通이 불편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 때 서울과 元山을 잇는 京元線이 開通되어 있어 그 鐵道가 江原道內를 지나간 高을이 鐵原과 平康이다.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宣言書가 配布된 것은 平康이다. 平康에는 2月 28日에 天道教 本部의 安相德이 700매의 宣言書를 몰래 가져와 鐵原郡, 金化郡, 華川郡, 淮陽郡·伊川郡·春川郡의 嶺西 各 教區에 配布하였다.

嶺東地方의 당시의 交通事情은 3.1운동 바로 전해인 1918年에 大關嶺의 車道인 新作路가 開通은 되었으나 名目上의 일일 뿐이고 嶺東 사람들의 서울 나들이는 大關嶺을 넘는 것이 아니고 竹邊 汀羅津, 注文津, 大浦 등의 港口에서 汽船편으로 元山港에 이르러 여기서 1914年에 開通한 京元線 鐵道를 이용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었다. 嶺東地方에 宣言書가 처음 온것은 平康을 基點으로 嶺西一部地方에 配布할 때 平康서 淮陽을 거쳐 東海岸 最北端 高을인 通川으로 들어 왔으며 이 것이 3月 2日이다.

江原道에서의 宣言書의 배포는 크게 두가지 經路가 있다. 하나는 天道教 系統으로 配布되었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系統으로 배포되었으며 간혹 系統 없이 配布된 것은 高宗의 因山參與로 갔던 사람이 서울서 3.1運動을 직접 겪고 그 때 얻은 선언서를 버선속에 몰래 넣어 갔던 것이 있으나 系統的으로 配布된 것은 앞의 두 宗教團體에 의한 것이 正式 配布였다.

江原道에서 平康은 嶺西 뿐만 아니라 嶺東에까지 影響을 끼친 基地的 役割을 했던 高을로 그 位相이 매우 중요하였다.

平康을 基點으로 通川으로 넘어 온 선언서는 通川·高城·杆城등 北에서 南으로 配布되었고 襄陽·江陵·三陟等地的 宣言文은 通川에서 南下한 선언서가 아니라 서울서 直接 가져온 것이다.

襄陽은 양양 儒林 李錫範이 高宗의 因山에 參與하느라 서울서 3.1運動을 겪고 3月 中旬에 歸家할 때 선언서를 가지고 왔고 또 하나는 3月末경에 당시 호수둔女學校의 學生이던 趙和壁이 양양감리교회 靑年들에게 傳達한 두 經路가 양양에 선언문이 들어오게 된 經路이다. 江陵은 어떠한 經路를 通하여 선언문이 들어왔는지 詳考할 길이 없으나 당시 草堂洞의 崔燾玉이 江陵運動을 主導했던 人物로 이도 高宗의 因山으로 서울에 갔다가 거기서 3.1運動을 겪고 歸鄉하였으므로 이 때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겠는가 하는 추측은 되나 근거는 없고 三陟은 4月 14日에 金達河가 선언서를 普通 學生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江原道 嶺西南部の 中心都市는 原州이다. 서울서 江原道 嶺西南 地域인 洪川·橫城·旌善·平昌·寧越 等地的 전파는 原州를 基點으로 하게 되나 原州에 언제 宣言文이 配布되었는지 明確하지 아니하다. 3月 13日 江原道 嶺西南 地域의 運動을 指揮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몇명의 連絡員이 왔으나 그 때 原州에 있던 宣教師가 日本官憲에 알려 체포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아마도 이 때 이 連絡員들이 宣言書를 가지고 왔었겠는데 체포되는 바람에 배포되지 못하였고 그 뒤 橫城에서 原州 소초면 쪽으로 선언서가 배포된다.

洪川은 3.1運動이 激烈했던 곳으로 그 始發은 高宗의 因山에 參與했던 사람들이 歸鄉하여 시작된다. 洪川에 宣言書가 들어 온 것은 原州나 春川을 通하여 왔다는 기록은 없고 因山 歸鄉人士에 의하여 들어 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橫城은 洪川과 함께 3.1運動이 激烈했던 곳이다. 橫城에는 天道敎의 大敎區가 있어 天道敎 中央本部와 直通되게 되어 있다. 橫城에는 3月 13日에 선언서와 태극기가 배포된다. 橫城의 天道敎大敎區本部가 영영포리에 있었으므로 宣言書가 天道敎本部에 온 것을 우천, 公根, 甲川에 配布했고 郡內 뿐만 아니라 原州郡의 소초면 둔둔면까지 配布하였다. 原州와 橫城에서의 宣言書 傳達配布에는 逆流現狀이 일어났다. 原州는 江原監營이 春川으로 옮겨 올때까지 400년간의 江原道 首府였고 交通도 南漢江 섬강의 水路로 서울과 通할 수 있는 곳으로 앞서도 잠깐 言及한 바와 같이 江原道 嶺西南 地域의 文化的 基點으로 예나 지금이나 橫城은 原州의 文化圈에 속하는 高장이다. 原州와 橫城에 3.1運動이 波及한 것은 같은 3月 13日에 었으나 原州는 運動員이 체포되어 市內에서는 크게 成果를 거두지 못했고 原州郡의 몇 面의 宣言書는 橫城 天道敎本部에서 傳達을 받게 되고 橫城의 3.1運動이 다른 高을에 比하여 激烈했던 것은 天道敎 大敎區本部가 있었다는 것과는 有關하다 할 것이다.

寧越에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선언문이 전달 반포되었는지 記錄이 없으나 여기서는 두 갈래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寧越은 天道敎가 盛한 곳으로 特히 2世敎主 崔時亨이 여기서 直接 宣敎했던 곳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橫城과 寧越이 隣接해 있는 점등으로 보면 天道敎를 通하여 들어 왔을 可能性도 있고 金馬里的 運動이 儒生들에 의하여 主導된 點에서 보면 혹 高宗의 因山과 有關하지 아니 할까도 여겨지나 이는 추측일 뿐이다.

平昌의 3.1運動은 天道教側과 儒林側의 合同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시발은 天道教區에서였다. 당시 平昌部의 교구실은 大和面 雲橋里에 있었고 이 雲橋里는 橫城大教區에서 멀지 아니하다. 따라서 선언서가 군청 소재지인 평창에 먼저 配布된 것이 아니고 天道教 橫城教區에서 平昌교구실이 있는 운교리에 먼저 配布됨으로써 平昌의 3.1運動은 막이 열린다.

旌善에는 天道教人이 상당수 있었으나 오지인 탓으로 3.1運動의 波及이 늦어 天道教人을 통한 이 運動이 시작하기 前에 官憲이 行政檢束을 했던 탓으로 旌善은 道岩面 이외에서는 運動이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선언서가 언제 旌善에 配布되었는지는 記錄에 없다.

以上으로 江原道の 각 市·郡을 단위로 3.1運動의 理念的 主體인 獨立宣言書가 언제 어떠한 經路를 통하여 傳達配布되었던가를 살펴 보았다. 이 傳達配布의 經路나 狀況의 大略을 여기 살펴보면 첫째 江原道에 가장 먼저 傳達配布된 곳은 行政과 文化의 首府였던 도청소재지인 春川으로 왔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平康 天道教에 2月 28日 傳達配布된다. 平康을 基點으로 鐵原등 江原道の 嶺西地方의 隣近郡은 물론 淮陽을 거쳐 영동지방의 通川에 까지 이르고 여기서 南下하여 高城·杆城에 이른다. 이것은 平康이 당시 京元線의 沿邊邑으로 交通이 便할 뿐만 아니라 天道教의 勢가 盛하였고 여기서 淮陽을 거쳐 추지령을 넘어 嶺東까지의 配布가 可能했기에 平康을 基點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언문의 傳達配布는 天道教, 基督教 儒林등 세가지 經路가 大宗을 이루고 있다. 天道教는 教區制로 되어 있어 系統이 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天道教는 3.1運動의 重要한 主體集團이었기에 天道教를 통한 傳達配布는 가장 重要한 經路였고 儒林系統은 그 때가 高宗의 因山 때였으므로 여기에 參與했던 儒生들이 歸鄉때 傳達配布된 것이 있고 기독교 系統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傳達配布한 것이 있다.

3. 運動의 實相

江原道에 宣言書가 가장 먼저 配布되었던 것이 2月 28日 平康이나 萬歲運動이 本格的으로 시작된 것은 3月 1日이 아니고 그 보다 늦게 일어난다. 宣言書가 配布되어진 直時 서울의 3.1運動과 때를 같이하여 萬歲運動을 하지 못하고 늦어지는 것은 서울서 온 宣言書를 다시 複寫하여 각 고을로 配布하고 전혀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한 狀況에서의 運動이었기에 運動의 조직, 날짜의 결정등 여라가지 問題 때문에 서울의 3.1運動에 호응한 直刻的 運動이 地方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울 보다 좀 지연되게 마련이었다. 서울은 學校가 많아 學生만 動員하여도 쉽게 大衆運動으로 開展이 可能하나 地方은 장날과 같이 大衆이 모이는 날이 아니면 大衆動員이 어렵다. 이리다 보니 시간이 지연 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地方運動이 거의 그 地方의 장날을 擇한 理由도 여기에 있다.

江原道에서 萬歲示威가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鐵原으로 鐵原邑에서는 3月 10, 11兩日에 걸쳐 일어난다. 宣言書가 들어 오기는 天道教勢가 強하였던 平康에 먼저 들어와 바로

인근인 鐵原에 配布되었고 鐵原은 당시 京元線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가장 서울과 交通이 좋았던 곳이다. 鐵原이 이렇게 江原道內에서 가장 먼저 萬歲示威가 일어났던 것은 平康에 가장 먼저 들어 온 宣言書가 平康 바로 이웃 고을인 鐵原에 빨리 전달된데 있다. 鐵原에서는 3月 2,3일에 이미 宣言書가 配布되어 示威運動의 基礎狀況이 조성되어 3月 10일에 기독교와 연락이 되었던 學生과 鐵原青年會의 青年들에 의하여 示威運動이 일어났고 그 뒤 天道敎 書堂訓導와 學生들에 의한 運動이 展開 되었다. 宣言書는 天道敎側에 의하여 가장 먼저 配布되었으나 天道敎人에 의하여 推進된 示威運動은 처음 일어났던 때 보다 1주일 늦은 3月 18日 鐵原장날이었다. 宣言書를 가장 먼저 入手配布한 天道敎 敎人の 運動이 좀 늦어진 것은 配布에 從事했던 天道敎人들이 배포 과정에서 많이 체포되었던 탓이다.

華川은 宣言書가 金化를 거쳐 配布되었고 示威運動은 3月 23일에 天道敎人이 中心이 되어 일어났으며 이 날은 華川 장날이었다. 組織이 없는 大衆運動에서 大衆을 動員하는 方法에 가장 좋은 것이 지난 날의 5日場制에서의 장날이다. 이런 탓으로 江原道の 거의 모든 곳에서의 萬歲示威는 장날에 일어났듯이 華川도 例外는 아니었다. 華川에서 天道敎가 아닌 示威가 28日 上西面에서 있었다. 3.1運動이 天道敎, 기독교, 學生, 儒林이 中心勢力이 되어 일어났는데 西上面에서는 住民 各界各層의 사람이 망라되어 시위를 했다는 것은 求心體가 뚜렷하지 아니한 集團의 運動의 하나의 예이다.

春川은 3月初에는 두드러진 活動이 보이지 아니하다가 3月 27일에 新北面 淸平里 주막거리에서 示威가 있었고 3月 28日 天道敎가 中心이 된 시위가 있었다. 春川은 舊韓國末年에 華西學統의 巨儒들에 의하여 義兵活動이 활발했던 곳으로 이러한 脈統으로 보면 3.1운동도 크게 그 勢를 떨쳐야 할 곳인데 여기는 道廳所在地로 日帝의 中隊規模의 守備隊를 비롯하여 憲兵隊의 數에 눌러 크게 떨치지 못하였다. 計劃은 3月 28日의 春川 장날에 示威를 하려 했으나 日帝의 兵力에 눌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楊口는 순수하게 天道敎人에 의하여 計劃되어 4月 3일에 竹谷里에 數 10명이 모여 示威를 했고 大概의 경우는 여파로 後續運動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楊口는 한번에 끝났고 근 20명이 檢舉되었다.

麟蹄의 경우는 감리교와 普通學校 學生이 主動으로 運動을 했으며 인제는 宣言文도 기독교 교회를 通하여 전달 되었다. 날자는 3月 28日 장날을 잡아 놓았는데 그 前에 日帝官憲에게 탄로가 되어 교회관계 모든 主動者와 學生이 事前에 검거되었다.

洪川郡內에서는 4月 1,2,3일에 연이어 일어났고 4月 13일은 洪川장날로 郡內에서는 기독교도와 青年, 그리고 北方面의 天道敎徒들이 示威에 가담하였다. 東面은 東學革命과 의병 활동이 強勢였던 곳으로 4月 2日 激烈한 示威가 있었고 乃村面에서는 天道敎人에 의하여 추진된 運動이 일어나 世稱 八烈이라 이르는 8名의 희생자를 내어 道內에서도 가장 激烈한 運動이 展開되었던 곳의 하나이다.

橫城은 天道敎大敎區가 設置되어 있는 地方으로 文化의 傳播나 수수로 보아서 原州를 中心으로 이 地方의 示威運動이 일어나는 것이 순리인데 天道敎의 大敎區가 橫城에 있었던 탓으로 宣言書의 配布, 運動의 影響이 橫城에서 原州로 傳達하는 現象이 생긴다. 첫번

제의 시도는 3月 27日 橫城 장날을 잡았으나 그 直前に 12名의 主動者가 日警에 檢擧되어 다음 장날인 4月 1日에 天道教 감리교도 地方靑年들의 主導로 示威運動이 일어나 5名의 희생자를 낳는 激烈한 運動이 展開되었다. 原州는 江原道 西南圈의 中心地로 日本憲兵의 數가 많았고 교회에서도 선교사가 禮拜 때 憲兵을 立會시키는등 活動이 자유롭지 못하여 義兵의 震源地이면서 邑內에서는 3.1運動이 失敗하였고 外廓 面地域에서 示威運動이 있었다. 寧越은 4月 11日 寧越普通學校學生들에 의한 示威가 計劃되었으나 事前에 發覺되었고 金馬里에서 4月 21日 장날에 示威가 있었다.

平昌의 平昌·大和는 事前發覺되었고 道岩面 橫溪에서 4月 7日에 示威가 있었다. 橫溪는 당시 行政區域上 旌善郡이었으며 旌善에서는 天道教人을 예비검속하여 擧事치 못하였다.

嶺東地方의 3.1運動은 바로 전해인 1918年에 大關嶺 길이 트이기는 했으나 서울 來住운 船便으로 元山까지 가서 京元線을 利用하고 있을 때라 元山서 通川을 거쳐 南下하는 추세로 運動이 展開 되었다. 嶺東地方도 嶺西와 같이 運動의 主體는 天道教人 기독교인 學生, 儒林과 一般人으로 되어 있다.

通川은 3月 3日에 宣言書가 배포되나 示威는 뒤에 일어났고 長箭은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4月 1,2日에 일어났다. 庫底에서는 4月 5日에서 7日까지 하였고 8日에는 普通學校學生들에 의한 示威가 있었다. 杆城은 普通學校學生들에 의한 運動外에는 現在 調査되어진 것이 없다.

襄陽의 3.1運動은 道內에서 가장 치열했던 郡으로 희생자도 다른 고을에 比하여 많았다. 襄陽은 天道教勢가 미약하여 3.1運動에 크게 影響하지 못했고 儒林勢가 강하여 儒林과 감리교도가 주도한 運動이 크게 일어났다. 儒林과 감리교도가 合同으로 4월초에 擧事를 하려다 4月3日에 日本官憲의 습격으로 主動者 22名이 체포되나 이미 계획했던 일이라 4월4日 襄陽장날을 期하여 일어나 4월6, 7일과 縣北面에서는 7일과 9일에 있었다. 9일은 其士門里運動이라고 이를 程度로 激烈한 運動으로 여기서만 9名의 희생자를 내었다.

江陵은 東學亂때 反東學軍을 編成하리만치 保守性이 강한 곳으로 이곳 運動은 天道教와 連關이 전혀 없는 儒林과 기독교도가 主動이 된 運動이었다. 4월1일의 1次運動은 기독교 목사와 靑年會가 주동이 된 운동으로 이날이 장날이었으므로 이날을 기해 일어났고 2次인 4월4일은 淤역사를 하던 農民이 中心이된 運動이며 4월7일의 3次는 靑年들이 장날을 利用하여 일으킨 運動이다.

三陟은 4월15일에 普通學校學生들에 의한 運動이 있었고 陰曆 3월5일이 三陟金氏始祖墓의 春季時享日이었기 約300명이 모여 示威運動을 하려했으나 事前에 누설되어 日兵의 出動으로 成事되지 못하였다.

江原道內의 各郡의 3.1運動의 實相을 살펴보면 激烈度の 差異는 있으나 이것은 愛國心의 差異나 獨立意慾의 差異에서 온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當時의 少數 親日分子를 除外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獨立은 한결같은 熱望이었었고 그 成就에 期待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다만 各 고을의 사정 즉, 天道教勢 기독교세, 유림세의 強弱, 組織의 虛實, 指導者의 能力등에 따라 成果나 희생자의 差나 激烈度の 차는 있었으나 그것이 그대로 그 郡民들의 愛國心의 차이와 直結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民族教育의 歷史와 그에 대한 認識

金 興 洙*

目 次

- | | |
|--------------------|--------------------------|
| 1. 序 | 2. 民族教育의 歷史에
대한 理解 實態 |
| 3. 韓國近代教育의 性格 | 4. 學校 設立의 實例 |
| 5. 民族教育의 歷史에 대한 정리 | |
| 6. 結 | |

1. 序

19세기 후반기의 韓國史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려는 韓民族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고, 한편으로는 전통 사회를 탈피하여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시대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전개되었던 여러 측면의 민족의 활동은 그 나름대로 국권을 수호하고 근대화를 이룩해야 되는 시대적 조류에 대응한다는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특히 근대 교육은 시대적 조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근대 교육은 개항 이후 밀려오는 서양의 신문물을 수용하여 새로운 시대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근대 교육의 역사적 의미를 民族教育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근대교육의 민족 교육으로서의 성격은 그 교육 내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국민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기 위하여 國語와 國史가 가장 중요한 교과목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春川教育大學 教授

1895년 갑오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에 의하여 근대 학교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민족 교육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그 역사가 이제 일세기를 맞게되는 시점에 와 있다.

오늘날, 민족의 분단상황을 극복하려는 시점에서 민족의 역량이 어느 시대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 즈음하여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발전의 힘으로 역할하였던 민족 교육의 역사와 함께 그 성격을 정리하며,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민족 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은 오늘의 민족 교육의 위치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民族教育의 역사에 대한 理解와 實態

筆者는 오늘의 教育現場에서 민족 교육의 역사를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作業의 일환으로 江原道 동해안에 위치한 몇개의 국민학교를 찾아 보았다. 이 지역의 학교 가운데는 근대교육의 初創期에 당시 大韓帝國政府의 主導아래 公立學校로 설립된 A학교도 있고, 1910년 이전에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愛國教育을 실시하기 위하여 私立小學校로 설립하였으나, 1919년 總督府에 흡수되어 공립보통학교로 되어 오늘에 이른 B학교도 있다. 또한 1906년에 애국 계몽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민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던 C학교도 있다.

그러나 A학교의 경우 학교가 1906년에 공립보통학교로 설립되었다고 揭示되어 있었고 그 당시 統監府에서 임명한 일본인이 초대 교장으로 記載되어 있었다.

1895년 서울에 처음으로 네곳의 官立小學校가 설립된 후에 점차로 지방에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는데, 1896년 정부에서는 각지에 설립할 공립소학교의 위치를 정하였다. 이때 정해진 곳은 13도 觀察使 所在地와 府, 開港場, 그리고 전국의 주요 郡所在地였는데, 이때 A학교의 소재지도 이에 해당되었으며 A학교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地方 公立小學校로 설립되었다. 이들 지방공립소학교가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公立普通學校로 改編되었던 것이다. 당시 지방 공립소학교의 교장은 대개 해당 지역의 郡守가 兼任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니 A학교의 초대 교장은 학교 설립 당시의 군수라고 보아야 한다.

통감부에 의해 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된 학교는 공립소학교뿐만은 아니었다. 각 지방에 설립되어 교육활동을 전개하던 私立學校가운데 그 규모가 비교적 충실한 학교를 공립으로 바꾸기도 하였었다. 만약 A학교가 大韓帝國政府에 의해 설립된 공립소학교가 아니고 사립 학교였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설립의 역사나, 초대 교장의 이름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즉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것이지만 더욱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학교의 歷史에 관한 인식에서 大韓政府(대한제국정부) 및 국민의 의지와 노력이 전개된 교육의 역사는 완전히 削除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통감부에 의한 교육정책은 한국을 植民地化하기 위한 준비로서, 종래의 民族教育의 성격을 배제시키고 日帝의 한국침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결

과적으로 민족에 의해 추진된 교육의 역사는 잊혀지고, 교육을 통해 민족의 自主獨立을 지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의 한 흐름이 역사에서 제거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 이러한 경우는 B학교에 있어서도 거의 같았다. B학교는 1919년 總督府에 의해 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된 것을 이 학교의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학교의 역사가 70년이 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학교는 1909년 통감부의 교육침략정책에 대항하여 애국교육을 통해 민족의 독립정신을 高揚하는 救國教育運動의 전개과정에서 설립된 사립학교의 하나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韓民族에 의해 추진되었던 民族教育, 愛國教育, 救國教育의 역사는 무시되고 일제에 의한 식민지교육, 노예 교육의 역사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B학교의 교사들 가운데는 1919년 공립보통학교로 출발하기 10년전에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認知하고 있었다. 그러나 公式的인 학교의 역사는 1919년부터라고 기록되어 있고 70年史의 刊行을 준비중이었다.

얼마전 春川에 소재한 D국민학교에서 개교 8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배풀어졌고 기념사업의 하나로 학교사를 편찬하였는데 개교 85년사로 명명하였다. 즉 이 학교는 1906년에 설립된 것으로 이제까지 알려져 온 것이다. 그러나 이 학교의 경우도 이미 1896년 당시의 한국 정부에 의해서 공립소학교로 설립되었고 정부에서 교사를 파견하고 있었다. 앞에 말한 A학교의 경우와 똑같은 사정이었다. 또한 原州에 소재한 E국민학교도 A학교의 경우와 같은 상황이었다.

이와같은 사정은 비단 이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전국의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학교의 공식적인 기록이 통감부나 총독부에 의해서 일본인 위주로 기록되었으며 그 이전의 민족교육의 활동을 말해주는 기록은 삭제, 말살시켜 버렸을 것이고 光復 또는 정부수립 이후에도 이를 바탕으로하여 학교의 연혁이나 역사를 기록해 왔으며 관계자들도 그와같이 이해해 왔었다고 하겠다.

3. 韓國近代教育의 性格

甲午改革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1895년 近代國家發展에 기본적인 토대로써 教育改革이 추진되었다. 漢城師範學校, 外國語학교에 이어 小學校가 설립되기 시작한 이래로, 많은 학교가 정부와 민간인에 의해 각지에 설립되었다. 정부(主務部署는 學部)에서는 주로 주요 도시와 읍 또는 郡에 설립하였고 민간인은 주로 자기 거주지역에 설립하였다.

이와같이 근대적 개혁인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이 진행되었던 것은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교육을 통하여 그 정신적인 기반이 이룩될 수 있다는 새로운 教育理念이 擡頭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 시대적인 當面課題로서 認識되어진 것이 外勢의 침투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독립을 지키고, 일본이나 서양의 근대적인 국가와 같이 새로운 문화를 일으켜 近代社會

로 발전하는 길이었다. 이러한 당면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전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였고, 여기에는 국민이 나라를 위한 애국심의 양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이는 교육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近代國家로 발전하는데 必需的인 新文明 또는 新學問을 受容, 普及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교육의 추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이처럼 근대교육은 國家와 民族의 자주 독립을 지키고 근대사회로 발전하려는 민족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었으므로, 단순하게 시대적으로 근대에 실시된 교육이라는 시간적인 區分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역사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역사적 의미는 民族教育으로 認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대교육이 갖는 중요한 성격이기도 하다.

교육이 국가의 가장 緊要한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국민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은 國王의 이름으로 정부가 1895년 2월에 발표한 教育立國詔書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교육입국조서에서는 교육이 국가발전에 기반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교육은 國家保存의 緊要한 手段이라고 規定하였던 것이다. 이는 종래의 교육이 限定된 사람들의 출세와 특수계층의 신분유지를 위한 성격이 강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教育觀의 일대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입국조서에 표현된 교육관의 변화는 이미 개혁이 진행되기 전인 1888년에 甲申政變의 중심인물이었던 朴泳孝가 일본에 망명해 있으면서 쓴 開化上訴文에서 그가 국왕에게 제시한 정부의 改革案 가운데 교육의 개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고 있는 것에서도 이미 보이고 있다. 또한 1895년 3월 정부의 內務衙門에서 개혁정치에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地方官에게 지시한 訓示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근대교육이 갖는 민족교육으로서의 성격은 그 교육내용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즉, 국민의 애국심을 양양하는 것으로 國文과 本國의 歷史가 각급학교에서 중요시 되었으며 정부가 처음으로 편찬한 교과서 가운데 역사교과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소학교의 교육내용을 말할 때 본국역사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학교에서 본국의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국가의 자주독립과 발전을 위한 주인공으로서 국민된 資質을 키우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고, 이것을 역사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넓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교육의 성격과 내용은 1895년 이후 정부에 의해 설립된 官公立學校나 민간인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나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日帝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그들의 식민지통치를 위한 침략과정에서 실시된 교육침략정책은 그동안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설립하고 운영해온 민족교육을 억압하고 그들의 침략에 맞도록 교육을 뜯어고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각급학교의 官制를 개편하여 종래의 국문이나 역사등 애국적인 교육내용을 축소 또는 삭제하고, 일본인 교사를 임용하며 日本語를 必須教科로 하는 등 종래의 국문이나 역사를 중심으로하여 국민의 애

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민족교육을 말살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립학교의 민족교육을 억제하기 위하여 私立學校令을 통해 학교의 설립과 운영 및 교육내용에 이르기까지 통감부가 간섭과 통제를 하려 하였다. 교육내용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教科書檢定制도를 강행함으로써 실시되었는데 이 결과 모든 교과서에서 애국적인 내용이 사라지고 日帝의 침략을 親善으로 歪曲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그동안 애국심을 고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역사교과서는 거의 검정에 통과되지 못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간행 및 頒布 자체가 禁止되었고, 다만 日帝의 침략을 언급하지 않은 몇가지의 교과서만 사용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교육침략에 대항하여 救國教育運動이 전개됨에 따라 전국에 약 5천여개소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족교육은 오히려 확대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近代 韓國의 민족교육은 1895년부터 정부나 민간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오다가, 일제의 침략으로 1906년부터 관공립학교는 민족교육의 성격이 약화되어 갔으나,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1910년 國權이 日帝에게 侵奪당할때까지 민족교육은 계속 전개되었던 것이다.

1895년 이후 관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발전이 이루어져 한국의 근대민족교육이 추진되어, 나라의 근대화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운동의 전개에 그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1906년 이후 사립학교를 통해 이의 전통이 확대 계승되어갔다. 이와같은 교육운동과 그로 인해 형성된 민족정신은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게 되자 곧바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近代民族教育의 發展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94년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교육개혁도 추진되어갔다. 改革의 초기에 이미 학교제도는 小學校, 中學校, 師範學校, 外國語學校, 專門學校, 大學校등에 이르기까지 普通, 中等, 高等, 特殊教育등으로 갖추어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1895년에 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교육이 국가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정부가 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립할 것이라는 내용의 教育立國詔書를 발표하고, 먼저 敎官의 養成을 위하여 漢城師範學校를 설립하였다. 곧이어 급격히 확대되어 외국과의 교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해 外國語學校를 설립한 후에 1895년 8월 서울의 네곳에 小學校를 설립하였다. 실제로는 한성 사범학교에 教育實習을 위한 附屬小學校를 먼저 설립한 후였지만, 일반적으로 壯洞, 貞洞, 桂洞, 紬洞의 네곳의 소학교가 우리나라 근대교육에 있어 최초의 普通教育機關으로 評價되고 있다. 소학교는 官立, 公立, 私立으로 구분되었는데 위의 네곳의 소학교는 관립이었으며, 곧 이어 각지방에 공립소학교가 지방별로 설립되어갔다.

1896년 學部에서는 서울의 두 곳에 관립소학교를 추가로 설립하였고 지방에 공립소학교의 설립장소로 漢城府, 水原, 忠州, 公州, 全州, 光州, 大邱, 晉州, 海州, 平壤, 定州, 春川, 咸興, 鏡城, 開城, 江華, 仁川, 釜山, 元山, 慶興, 濟州, 楊州, 坡州, 清州, 洪州, 林川, 南原, 順天, 靈光, 慶州, 安東, 安岳, 義州, 江界, 成川, 原州, 江陵, 北青등 모두 38개지역을 지정하

고 차례로 소학교를 설립해 나갔다.

소학교의 경우 1899년의 학교 현황을 學部의 보조를 받는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에 관립소학교 10교, 사립소학교 11교, 각 지방에는 소학교가 62교로 서울의 다른 학교를 합하여 전국의 학교 총수가 92교였다. 지방의 소학교 62교는 공립과 사립을 합친 것이다. 1900년에는 13도와 각 府郡의 공립소학교가 50교였으며, 서울의 사립학교는 24교였다. 이들 학교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학교만 헤아린 것이고 실제로 설립된 사립학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이와같은 관공사립의 학교들이 1905년까지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外勢의 침략위협이 증가되어가고 있는 시대상황속에서 국가의 자주독립을 지키며 근대사회로의 발전을 지향하면서 민족교육을 전개해 나갔고 통감부의 침략에 대항한 민족의 구국교육운동은 계속 추진되어 1910년 5월에는 전국의 사립학교가 5천여교나 되었다.

4. 學校 設立의 實例

갑오개혁의 진행과정에서 1895년 근대교육개혁이 추진되어 정부에서 학교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학교가 설립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1895년 이후 각지에 설립된 학교를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그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립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1895년 서울에 설립된 관공립학교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지방의 학교에 교사를 임명한 실례를 중심으로 그 설립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1896년과 1897년에 임명된 상황을 알아 보았다.

1896년에 처음으로 지방 공립학교의 교사가 임명되는 곳은 인천과 대구였다. 즉 1896년 1월 22일자로 仁川府 공립소학교에 卞榮大, 大邱府 공립소학교에 李恒善이 임명되었다. 이들은 1895년 10월에 官立漢城師範學校의 速成科를 처음으로 졸업한 사람들로서, 당시 모두 28명이 졸업하여 졸업시험 성적순서에 따라 서울의 관립소학교에 임명되고 그 뒤를 이어 처음으로 지방의 공립소학교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임명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월 29일 - 忠州공립소학교 ~ 黃漢東
- 2월 4일 - 江華郡공립소학교 ~ 鄭芝錫
水原郡공립소학교 ~ 李弼求
- 3월 12일 - 開城府공립보통학교 ~ 李鐘浹
- 3월 20일 - 坡州郡공립소학교 ~ 李漢應
- 5월 30일 - 公州郡공립소학교 ~ 李東鉉
平壤府공립소학교 ~ 安榮商
- 6월 8일 - 大邱府공립소학교 ~ 金寧濟
咸興府공립소학교 ~ 申秉均

6월 10일－楊州郡공립소학교～金龜演

6월 22일－大邱府공립소학교～張聖和
平壤府공립소학교～金鳳鎮

7월 10일－洪州府공립소학교～金寧濟(≠대구부에서 옮김)

충주 공립소학교로 임명되었던 黃漢東이 9월16일자로 경기관찰부 공립소학교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소재지는 水原이며, 같은날에 梁柱星이 충청북도관찰부 공립소학교에 임명되는데 과거의 충주공립소학교인 것이다.

앞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96년 學部에서 전국의 주요지역에 공립소학교의 위치로 38개소를 지정한 일자가 9월17일인데 실제로는 앞의 교사 임명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미 그 이전부터 공립소학교는 설립되고 있었던 것이다.

9월 19일에 경기도관찰부 공립소학교에 충주에 있던 黃漢東이 옮겨지고, 10월12일에는 대구부 공립소학교에 있던 張聖和가 依願辭職하였는데 洪州府공립소학교의 金寧濟가 그 자리에 임명될때는 慶尙北道觀察府 공립소학교로 칭하고 있다.

10월 29일에는 관립한성사범학교의 제2회 속성과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優等 11명, 급제 30명으로 모두 41명이었고, 이들은 곧 다음과 같이 각지의 공립소학교에 임명되고 있다.

10월 29일－홍주군공립소학교～沈承弼

10월 30일－청주군공립소학교～金啓明

10월 6일－전라북도관찰부공립소학교～張聖和

전라남도관찰부공립소학교～趙漢高

경상남도관찰부공립소학교～尹大善

황해도관찰부공립소학교～金寅煥

평안북도관찰부공립소학교～鄭雲好

강원도관찰부공립소학교～具滋弘

함경북도관찰부공립소학교～鄭煥教

부산항공립소학교～金炳天

원상항공립소학교～金鳳秀

경흥항공립소학교～趙在赫

임천군공립소학교～柳喆秀

남원군공립소학교～朴稚祥

순천군공립소학교～李鐘珏

11월 16일－제주목공립소학교～田錫圭

홍주군공립소학교～宋元燮

경주군공립소학교～尹弼求

안동군공립소학교～尹輔榮

안악군공립소학교～尹相洪

의주군공립소학교~鄭奎鐘
강계군공립소학교~林致亨
성천군공립소학교~金昌有
원주군공립소학교~李昇儀
강릉군공립소학교~朴熙命
북청군공립소학교~李相元

이상의 교사 임명 상황을 보아 1896년에 지방에 공립소학교가 설립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서울을 제외하고 1896년 공립소학교는 정부가 공립소학교의 위치로 지정한 곳에 거의 설립되고 있었던 것이다.

1897년에 강원도 淮陽郡, 경기도 金浦郡과 通津郡에 교사가 임명되고 있다.

한편, 1910년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에는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학교의 정도는 일부 中等이나 專門課程도 있었으나 주로 소학교 수준이었고 夜學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가르치는 내용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일본어와 산술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많은 학교에서는 당시의 官公立小學校의 교과과정에 맞추었다.

이들 학교의 규모는 영세하여 학생이 100여명이 넘는 학교는 큰 학교였으며 적은 경우는 10여명에도 불과하였고 대부분 30명에서 50~60명 정도였다. 학교 건물에 있어서도 새로이 신축하여 설립하는 것은 거의 없고 학교설립자나 地方有志의 집을 활용하였으며, 많은 경우에는 이전에 書堂이나 향교로 쓰였던 齋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5. 民族教育의 歷史에 대한 정리

이상의 근대 민족교육의 性格과 發展에 관한 내용은 앞에서 提起한 문제의 核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의 국민학교는 초등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設立, 管理, 運營이 국가에 의해 一元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에는 私立인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숫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공립보다 월등하게 많은 때도 있었다. 이들 사립으로 출발한 학교들도 지금은 모두 국가의 관리에 포함되어 버렸다. 그러는 과정에서 私立이전의 학교의 역사가 단절되기 쉽고 또한 학교 관련 자료의 효과적인 보관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민족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립이다. 현재의 많은 학교 가운데는 앞의 A학교의 경우와 같이 일제 침략이전에 大韓帝國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일제 통감부에 의해 보통학교로 개편되어 그 이전의 역사를 잊게 되었거나 B학교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다가 총독부에 의해 공립학교로 되면서 그때까지의 역사가 삭제되어 버린 학교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잊혀진 앞의 역사야말로 민족의 자주독립을 守護하던 민족교육의 전개시기라고 할때 이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필요한 일은 학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학교의 校長, 校監 및 教師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循環勤務制에 의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학교에 장기간 근무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해당학교의 오래된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學校史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편찬한 경우도 있고, 교장이나 교사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학교사를 편찬하거나 편찬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여도 A 학교나 B 학교의 경우와 같이 중요한 시기의 학교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을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학교의 관리를 하고 있는 教育部나 지방의 教育廳에서 이에 대한 行政的指示등 방법을 동원하여 각학교의 역사를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정부 수립 이후 또는 최근의 사회발전과 연결되어 특히 도시지역에는 새로 설립된 학교가 다수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6년 이전 또는 1910년 이전에 우리의 정부나 애국적인사에 의해 설립된 公私立學校는 그 수효가 적지 않다. 교육행정관계기관에서는 우선 1945년 이전부터 維持되어온 학교를 구분하여 해당학교의 역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6. 結

韓國의 近代教育은 帝國主義 外勢의 侵略에 대항한 民族運動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므로 그 歷史는 民族運動史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學校史의 의미를 재평가해야 될 것이다. 특히 19세기말 근대교육이 성립 발전하는 시기, 또는 일제 침략에 대항하여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救國教育運動으로서 설립된 학교의 역사는 단순히 한 학교의 과거를 말해주는 역사가 아니라 민족의 愛國的인 움직임의 역사로 이해되고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역사를 상실한채로 식민지교육의 출발을 그 시작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대민족교육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아울러 우리 주변의 학교 가운데 초창기 민족교육이 발전할 당시의 학교의 起源을 갖고 있는 학교를 찾아 그 역사를 발굴 정리하는 일은 민족운동사의 발굴일 수도 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教育行政體系上으로 볼때 教育部와 각지방의 教育廳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각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도 이에 관심을 갖고 資料의 蒐集과 정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江原 東學運動의 고찰

金 永 琪*

최제우(崔濟愚)의 천도교 창시

천도교는 조선왕조 제25대 철종 12년(1860)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가 창시했다. 포교 4년째인 1864년 좌도(左道)에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는 좌도혹민(左道惑民)의 죄목으로 그는 처형되었다.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勢不忘萬事知)는 최제우의 유명한 13자의 주문(呪文)이다. 고종1년(1864년) 3월10일 ^世혹세무민(惑世誣民)했다는 죄로 처형당했지만 천도교, 즉 동학(東學)의 교세는 점차 민중 속으로 파고 들었다. 그는 척양척왜(斥洋斥倭)를 주장했으며 보국안민(保國安民)을 주장했다. 「용담유사」(龍潭遺詞)에서는 『요망한 서양적이/천주당 세워놓고.../전세 임진 왔다 간 개같은 왜적놈/일야에 떨하자』고 읊었다. 밖으로 향한 반제국주의 세계인식은 안으로 또한 반봉건주의로 강렬하게 타오른다. 『아국 운수 다했구나 군불군 부불자 자불자』라 했다. 임금이 임금이 아니요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니, 아들 또한 아들이 아니다. 군불군(君不君) 부불부(父不父) 자불자(子不子)의 세태 비판은 당대에 있어서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여간 불온한 언사가 아닐 수 없었다.

조선왕조는 봉건적인 모순이 격화되어 농민봉기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열강의 침략과 그 길 안내 구실의 측면을 가지고 있던 서학(西學)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민족적 색채를 가지고 제병장생(濟病長生)과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외치는 천도교, 즉 동학(東學)이 민족종교로서의 자리를 잡아갔던 것이다. 보국안민 포덕천하(布德天下) 억조창생동귀일체(億兆蒼生同歸一體)의 제도(濟度)를 목표로 고금 무비(無比)의 대도(大道)로 천명되었다.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東學史)에는 최제우의 도(道)의 문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문 : 선생의 하늘바 도는 무슨 도인가.

답 : 천도(天道)니라

*江原日報 論說委員

문 : 천도는 선천고래(先天古來)부터 있었나니 고인(古人)이 말하는 천도와 다름이 있는 것인가.

답 : 도는 같은 것(道則同也), 이치는 다른 것(理則非也)이다. 고인의 소위 천도라 함은 인류 밖에 따로 최고무상(最古無上)의 신(神) 일위(一位)를 설하여 그를 인격적 상제(上帝)로 모셔 두고 인류는 그 하위에 거하여 배복(拜服)하며 자기의 생사화복을 모두 그의 명령 아래 정한 바라는 것이오. 나의 이른바 천도는 이를 반하여 사람이 하늘이오 하늘이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문 : 사람이 하늘이라 함은 무엇인가.

답 : 형(形)이 있는 것이 사람이오, 형이 없는 것이 하늘이니 유형과 무형은 이름은 비록 다르나 이치는 곧 하나니라. 사람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혹은 말하되 물도 근원 없는 물이 없고 나무도 뿌리 없는 나무가 없는 것이니 사람의 위에 따로 주재(主宰)하는 하늘이 없다 함은 깨닫기 어려운 말이다. 물이 만일 근원이 있어 흘러오는 것이라면 뿌리의 뿌리는 또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하리오. 사람도 이와 같이 처음 하느님이 있어 낳았다 할 것 같으면 하느님은 처음 누가 낳아주었다 하겠는가. 사람이 누가 부모 없이 낳은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부모의 부모를 거쳐서 또 그 이상 천부모(千父母) 만부모(萬父母)를 찾아 올라가 보아도 맨 처음 낳은 부모는 그 누구라고 할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천황씨(天皇氏) 까지 찾아 올라간다고 하지마는 천황씨 이상은 또 무엇이라고 말할런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럼으로써 사람의 근본을 찾는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말이라고 하는 바이다.

문 : 선생의 이른바 시천주(侍天主)라 함은 무엇인가.

답 : 세상 사람들이 모두 천주(天主)가 따로 있는가 하고 위하는 자가 많으므로, 나는 말하되 천주가 있다면 우리의 자체에 있다 함을 보인 것이다.

문 : 주문(呪文)의 뜻은 무엇인가.

답 : 지기(至氣)라 함은 천지간에 지극한 기(氣)를 두고 이름이니 그 기는 지허지령(至虛至靈)하고 무사불섭(無事不涉)하며 무사불명(無事不命)하여 사람도 그 기로써 생하고 만물도 그 기로써 생하나 형용코저 하여도 형용할 수 없고 듣고자 하여도 들을 수 없고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을 말하여 혼연일기(渾然一氣)라고 하는 것이며, …… 시천주라 함은 사람은 모두 안으로 그 영(靈)이 있어 살고 밖으로 그 기가 있어 사는 것이라, 그것을 하느님으로 알라는 말이며 조화(造化)라 함은 무위이화(無爲而化)라 함이니, …… 영세(永世)라 함은 우리의 일평생을 두고 이름이고, 불망(不忘)이라 함은 우리가 무위이화 하는 그 기로써 살고 그 영으로써 살아감을 두고 일평생을 두고 잊지 말라는 뜻이니, …… 만사(萬事)라 함은 사람은 그 지기(至氣) 속에서 무위이화로 나오는 일이 있어 만가지로 많다는 뜻이며 지(知)라 함은 사람이 모두 그 도로써 되었으니 그 도를 알아야 지(知)가 나오는 것이오 그 일을 알아야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다.

문 : 도의 연원은 무엇인가.

답 : 도는 사사상수(師師相授)로 한다 할 것이나 도의 실제 연원에 있어서는 사람의 자

체에 자재(自在)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나를 믿지 말고 각기 자신에게서 찾으라 하였다.

문 :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떠한 것인가.

답 : 지난날의 삼강오륜이 벌써 퇴폐하였으니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비록 요순(堯舜)의 정치와 공맹(孔孟)의 도덕으로도 족히 말할 수 없는 것이오 세상 사람이 다같이 자기의 자각으로써 꼭 같이 살게 될 것이나 세운(世運)이 크게 변천하여 천지도 새로 개벽이 되고 국가도 또한 비참하게 되어 함지사지출생(陷之死地出生)이라, 많고 많은 그 사람이 몇이나 참여할고, 억만장안(長安-서울)이 빈 터가 되고 고국이 쇠진커든 또 다시 놀아볼까 하는 예언 같은 말을 노래로 전하였다.

최제우의 각도(覺道), 즉 깨달았던 도는 인심(人心)이 천심(天心)에 합치되는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이 된다. 그 대도(大道), 고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도를 하늘의 명에 의하여 받았으므로 그 도를 천하에 펴는 것이 소명이라고 했던 것이다.

부패하고 혼란한 현실로부터 창생을 구제하고 거기에 개혁의 정신을 심고 실천하며 당시 극단적인 계급제도의 반항심을 강화시켜 하늘이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사상을 심었다.

최제우는 천도교(동학)을 창시한지 3년 만인 임술 12월에 각지에 접소(接所)를 설치하고 그 지역에서 인망 지위가 상당한 인물을 접주(接主)로 임명했다. 교도들 사이에서는 접장(接長)이라 불렀다. 접주로 하여금 교도의 훈련과 관리에 종사케 했다. 경주에 이내겸(李乃兼) 백사길(白士吉) 강원보(姜元甫), 영덕에 오명철(吳明哲), 영해에 박하선(朴夏善), 청하에 이민순(李敏淳), 영일에 김이서(金伊瑞), 안동에 이무중(李武中), 단양에 민사엽(閔士燁), 영양에 황재민(黃在民), 신영에 하치욱(河致旭), 고성에 성한서(成漢瑞), 울산에 서군효(徐君孝), 장기에 최중희(崔仲羲) 등이 임명되었다. 이듬해 계해 7월에 최경역(崔慶翊)을 북접도주(北接道主)로 임명하여 종무(宗務)를 통할하며 각 접(接)과의 연락을 취하게 했다.

이때까지는 동학에 대한 소문이 강원도에도 널리 퍼졌을 것으로 추측되나 실제로 포교, 전파된 증거는 없다.

최시형(崔時亨)의 강원도내 포교

동학 제2세 교조 최시형은 동학교문 기초의 안고(安固)와 교화홍통(教化弘通)을 자기의 사명으로 했다. 시종일관 정치에 관여하기를 자제하고 교세 확장에 전력을 다하였다.

교세확장을 꾀하면서 교단조직의 제도를 면밀하게 세웠다. 전국 각지에 교구제(教區制)로서 포제(包制)를 실시했으며, 각포(各包)에는 접주(接主)를 두어 통솔케 했다. 각 접주 중에서 세력이 있는자를 도접주(都接主) 또는 대접주(大接主)로 임명, 각포를 통솔하게 했다. 도접주, 대접주 위에는 교주(教主)를 두었다. 또 각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육임(六任)의 제도를 설정했다. 교장·교수·도집·집강·대정·중정을 두었다. 교장(教長)에는 자

질이 알차고 인망이 두터운 사람을 뽑고, 교수(教授)에는 성심으로 수도하여 도를 전수할 수 있는자로, 도집(都執)은 감화력이 있고 기강이 밝으며 경계(經界)를 아는 사람을 세웠다. 집강(執綱)은 기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대정(大正)은 공평하고 신중 중후한 사람을, 그리고 중정(中正)은 바른 말을 능히 할 수 있는 강직한 사람을 세웠다. 신원운동(伸冤運動) 무렵에는 각포(各包) 대접주에게 포명을 주고 교구를 구분했다.

충경대접주(忠慶大接主) 임규호(任奎鎬) 정의대접주(清義大接主) 손천민(孫天民) 충의대접주(忠義大接主) 손병희(孫秉熙) 문청대접주(文淸大接主) 임정준(任貞準) 옥의대접주(沃義大接主) 박석규(朴錫奎) 관동대접주(關東大接主) 이철우(李哲雨) 호남대접주(湖南大接主) 남계천(南啓天) 상공대접주(尙功大接主) 이관영(李觀永)등에게 포명이 주어졌다.

교도의 총 집회기관은 증양에 법소(法所) 각지에 도소(都所)를 두었다. 청주의 손천민, 옥천의 박석규, 보은의 임규호, 예산의 박희인(朴熙寅), 문의의 임정준, 청산의 박태현(朴泰鉉), 부안의 김낙철(金洛喆), 무장의 손화중(孫華中), 남원의 김개남(金開南), 청풍의 성두환(成斗煥), 홍천(洪川)의 차기석(車基錫), 인제(麟蹄)의 김치운(金致雲) 등으로 본포(本布)를 설치했다.

포명을 받았던 관동대접주 이철우, 홍천·인제 본포인 도소(都所)의 도접주가 되었던 차기석 김치운 등이 이때의 강원도내 동학교도의 지도자요, 지역 책임자였다.

동학 제2세 교조인 최시형이 포교에 정력을 쏟고, 조직에 정성을 쏟을 초기에 비로소 강원도내에 동학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동학 포교 10년째가 되던해 비로소 동학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천도교창건사」(天道敎創建史)에 이돈화(李敦化)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강원도내에서 최시형이 포교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포덕(布德) 10년(1869년) 기사 2월에 신사(神師)가 영양(英陽) 일월산(日月山)에 은거하실새 양양(襄陽) 사람 최혜근(崔惠根) 김경서(金慶瑞)가 와서 신사께 뵈고 가로되 「생등(生等)이 입도(入道)한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도(道) 닦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찾아왔나이다.」 하거늘 신사—그 연원을 물은 대 같오대 「공생(孔生)이라 칭하는 사람이 입도를 권하는 고로 말에 의하여 도에 참여한 이레 삼칠자(三七子)를 외울 뿐이오 절차는 알지 못하나이다.」 신사—그 정성을 가상히 여기시고 도의(道義)를 순순히 설명한후 두 사람이 신사께 향하여 양양포덕(襄陽布德)을 역설하고 기어히 배왕(陪往)하기를 고청(固請)하거늘 신사—또한 그 방면에 유의한지 오랜지라 박춘서(朴春瑞)를 데리고 양양을 향하여 30여 호(戶)의 포덕(布德)을 얻고 그 이듬해 경오에 이르기까지 양양 산중에 은거하사 치성(致誠)과 송주(誦呪)를 일을 삼더니 이해 10월에 들은즉 공생(孔生)이라는 자—상주(尙州) 동관암(東關岩)에 이르러 대신사(大神師)의 가족을 달래여 영월(寧越) 소밀원(蘇密院)으로 이거(移居)케 하였다 하는지라 신사—홀로 근심하시되 세정(世貞)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험난한 이때 사람의 말을 함부로 좃으니 반드시 장래가 좋지 못하리라 염려하였으나 기과지사(己過之事)라 아즉 후일을 기다리기로 하시였다.」

최시형은 양양에서 2년간 체류하면서 정력적으로 포교했으며, 이 때가 처음으로 강원도내에 동학교가 전파되는 효시가 되었다.

『신미 오월에 이필(李弼)이 다시 도인 권일원(權一元)을 보내어 신사에게 면회하기를 청한바 무릇 5회에 이른지라 신사 또한 거절하기 난하여 친히 영월(寧越)을 가셔서 이필을 보니…… 영월군 직곡리(稷谷里) 박용걸(朴龍傑) 인지라 신사 밤을 타서 가만히 직곡리에 들어가 박용걸가에게 이른즉 박용걸의 부친이 밖에 나와 맞아 상좌에 앉히고 미리 준비하였던 석반(夕飯)을 진공(進供)한 후에……』

이때 영월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각 도인들을 모아 접인접물(接人接物)의 뜻을 설범하기까지 했다.

『포덕13년(1872년) 임신 정월에 신사 강수(姜洙)로부터 양양 소밀원에 나아가 박부인을 뵈우시다. 이로 먼저 왕년에 신사 강수로부터 정진일(鄭進一)의 집으로 난을 피하여 올 때에 먼저 세정(世貞)의 집을 들렀더니…… 소밀원에 나아가 대신사(大神師)의 가족을 전부 인솔하고 급히 도망하여 박용걸가에 돌아오니 박용걸일이 기뻐하여 조금도 난색이 없는지라…… 인제군 남면 무메리(舞梅里)에 이르러 김병정(金秉鼎)을 찾으니 김병정은 태백산 반이차(搬移此)로 방금 속장(束裝)하는지라 신사 김병정과 같이 동사둔(東沙屯) 영춘(永春) 의풍(義豐) 등지를 지나 길을 상세히 인도하여 주고 강수 전성문(全星文)으로 더불어 정선군 무은담(霧隱潭) 유인상(劉寅常)가에 이르러 소문을 드러니 대신사의 제3녀와 세정의 처가 장춘보(張春甫)가에 두유(豆留)하다가 인제옥(麟蹄獄)에 피수(被囚)되었다 하고 그 화를 입힌 자는 도인(道人) 김덕중(金德仲)이 관리에게 교사하였다 하며 세정이 또한 5월 12일에 양양옥(襄陽獄)에서 장사(杖死)가 되고 김덕중(金德仲) 이일여(李逸汝) 최혜근(崔惠根) 등은 유형(流刑)을 받았다 함을 듣고 강수에게 일러 갈오대 「지도(知道)하는 자-가히 명을 말치 아니할지나 차일차보(此日此報)는 실로 인정에 참지 못하리라」 하시었다.』

최시형의 포교활동에 여러가지 장애가 나타나고 양양 인제 영월 등지로 동분 서주하는 정황이 확연하다. 이때 1년 10개월동안 체류했다.

『포덕14년(1873년) 계유 10월에 신사 강수 유인상 전성문 김해성(金海成)등을 데리고 태백산 갈래사(葛來寺) 적조암(寂照菴)에 오르니 주지승 철수좌(哲首座)-공손히 맞아 대우 후한지라 신사 철수좌에게 일러 갈오대 「거산예불(居山禮佛)과 취정기천(就靜祈天)은 승속이 일반이니 내의 소공(所工)은 다만 염천송주(念天誦呪)로라」 한대-승이 갈오대 주문은 무슨 글입니까. 신사 갈외대 「상인(上人)은 혹 동학(東學)이란 말을 들었노 주문은 동학의 법문(法文)이니 내 주문을 고성낭독할지라도 상인이 염기(嫌忌)치 않겠나뇨」 한대……』

태백산공(太白山工)이라 일컬어지는 정선지방에서의 포교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이때쯤에는 이미 양양·인제·영월·정선에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년을 체류하면서 포교했다. 제2세 교조 최시형은 한편으로는 숨어서 포교하고 한편으로는 거점을 정해놓고 포교했다. 양양-인제-홍천-횡성-원주-영월-정선으로 이어지는 길이 최시형의 포교길이 되었다.

『포덕19년(1878년) 무인 7월에 신사 접소(接所)를 유시헌(劉時憲)가에 정하시고 도제

(徒第)에게 개접(開接)의 문(文)을 발하시니 알……』

『포덕20년(1879년) 3월에…… 영월군 거석리(巨石里) 노정근(盧貞根)가에 이르렀더니…… 신사 인제군 김현수(金顯洙)가에 임하시니 근지 도인이 기도식(祈禱式)을 행하기를 청하거늘 신사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허하시고 이해 4월에 대설법을 행하시고 11월 12일에 조시철(趙時哲)가에서 치성식(致誠式)을 거행한 후……』

이 무렵 인제지역의 포교활동이 정착되고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全)의 발간 작업의 정지도 다져졌다.

『포덕28년(1887년) 정해 정월…… 신사 서인주(徐仁周) 손천민(孫天民)으로 더불어 정선군 유시현가에 이르사 장차 춘기(春期)의 사십구기도(四十九祈禱)를 행코저 하더니 유시현이 신사에게 고하여 갈오대 갈래산은 일즉 선생의 개단(開壇) 수도하던 곳이라 그 곳에서 수련함이 어떠하십니까 한대 신사 쾌히 허락하시고 갈래산에 드러 칠칠기도(七七祈禱)를 마치시고 인하여 강시(降詩) 있으니……』

『포덕29년(1888년) 인제군 김연호(金演鎬)가에 피신하였더니 포졸이 뒤를 따름이 심한지라 고쳐 간성군(杆城郡) 김하도(金河圖)가에 이거하였다가……』

최시형의 포교 지역이 인제에서 직접 통하는 간성지역에까지 뻗치게 된다. 『포덕 31년(1890년) 경인 3월에…… 손병희(孫秉熙) 손병흠(孫秉欽) 형제가 스스로 담교를 가지고 신사를 모셔 충주(忠州)군 의서촌 보평(湫平)에 이거하시다가 이해 7월에 신사 양구(楊口) 간성 등 제군(諸郡)을 순회하시고 인제군 남면 성황거리(城隍巨里) 이명수(李明秀)가에 이르니 마침 새의 무리가 들나무에 앉아 우는 것을 보시고 갈오대…… 「저 역시 시천주(侍天主)의 소리라 묘하다 천도(天道)의 영묘(靈妙) 일에 간섭치 않음이 없도다. 우오로 일월(日月)의 큼과 아래로 미진(微塵)의 적음이 다 천도의 영광(靈光)이 아니라 이제 우속(愚俗)이 산에 빌며 물에 빌어 복을 구하는 자 또한 이험(異驗)이 없지 아니함은 이 또한 천지의 영묘-조임(照臨)치 아님이 없는 증거니라 그러나 화와 복은 결코 외물(外物)에 있는 것이 아니오 자심(自心)으로 자조(自造)하는 것이니 고로 마음은 화복의 기틀이며 천주의 권능이니라」 하시고 인하여 항시 있어 갈오대……』

이상은 제2세 교조 최시형의 강원도내 전도 활동 상황이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강원도내에서 활동했던 상황을 「천도교창건사」에 기록된 부분에서 뽑아본 것이다. 동학교가 강원도내에서 그 교리를 완성하고 전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과정이 소상하게 나타난다.

동경대전(東經大典)의 개간(開刊)

「동경대전」은 동학교의 경전이다. 「동경대전」이 인제군 갑둔리(甲遁里) 김현수(金顯洙)가에서 개간되었다. 이돈화의 「천도교창건사」에는 「동경대전」 발간의 역사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포덕21년(1880년) 2월에 신사 치성식을 김연석(金演錫)가에서 행하시고 3월 10일에 대신사의 기제식(忌祭式)을 본제(本第)에서 행하시고 4월 5일에 대신사의 향예(享禮)를 마치시고 5월에 신사 경전간행소(經典刊行所)를 인제군 갑둔리 김현수가에 설하시다.

원래 대구(大邱) 참변 후에 대신사의 소저간책(所著刊冊)이 화진중(火儘中) 다 소실되어 일문일자(一文一字)도 가고(可考)할 바가 없더니 이때에 신사 친히 수집(修輯)하실새 본래 문식(文識)이 없음으로 글로 기술치 못하시고 경전(經典)을 친히 암송한 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대서(代書)케 하여 개간(開刊)한지 1개월에 걸공(訖工)하니 이것이 곧 동경대전(東經大典)이었으며

그 이듬해 포덕 22년 신사 6월에 신사 다시 개간소를 단양군 남면 천동(泉洞) 여규덕(呂圭德)가에 개설하시고 조선문가사(朝鮮文歌辭) 8편을 구송(口誦)하여 간행케 하시니 이것이 곧 「용담유사」(龍潭遺詞)이었다.

이해 10월에 신사 정선군 유시헌가에 별성(別誠)으로 고천식(告天式)을 행할새 예필(禮畢)에 도제(徒第)에게 일러 갈오대 오도인(吾道人)이 어육주초(魚肉酒草)를 금한지 어언 7주년이라 이제 강화(降話)의 교(敎)로써 이를 해금(解禁)하노라 하시다…….

포덕 24년(1883년) 계미 2월에 신사 다시 간행소를 충청도 목천군(木川郡) 내리(內里) 김은경(金殷卿)가에 설하시고 동경대전 천여부를 간행하사 각포에 보급하니 이때에 도운(道運)이 충청 경기에 파급하여 포덕이 날로 융성하였었다.』

동학교의 경전은 처음에 강원도 인제군에서, 그 다음에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그다음에는 충청남도 목천군에서 발간되었다. 경전이 발간됨으로써 전도가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 동학교의 경전이 인제군 갑둔리 간행소에서 처음 개간(開刊)된 것은 강원도내에서의 작업이 훨씬 안전할 뿐만 아니라 교세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동학의 교세확장과 강원도 포교 및 경전의 발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영동(嶺東)지방에서의 동학혁명

영월·평창·정선 등지에서 동학혁명군이 강릉으로 진격한 것은 1894년 9월4일이었다. 영월·평창·정선은 영동문화권에 속해 있어서는 당시 강릉과 양양의 동학교도와 힘을 합치는 형세를 이루었다. 그래서 영월·평창·정선의 동학교도가 합세하여 쳐들어간 것이 강릉지역이었다. 강릉지방의 향토지인 「임영지(臨瀛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基徒出沒於寧平旌三品九月四日基徒教千名流入本府稱以軍用討索民財爲敗滋甚基時李承旨會源與權光顯元世重崔熙瑯鄭憲重及崔允鼎金振永謀所以剿絕寡集邑村民丁各基頭纏白布腰圍大索以別之乘夜掩擊其徒死傷者頗多餘皆逃散舉室上報上持除李會源本府使兼關東召募使兼關東召募使郎遣武士數百掃蕩嶺峽窠窟其時崔鎮九堅守進高峙李震錫討平嶺西諸郡』 즉 9월 4일에 영월·평창·정선에서 동학군 수천명이 강릉부로 쳐들어 왔으며 이를 막기위해 이회원부사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웠다. 죽음을 당하고 부상당한 동학군이 많았다. 또한 강릉지

강

방의 의여(義旅·반동학의 의병이라 해서 그렇게 부름) 지도자가 여러사람 참여한다. 「임영지」에 기록된 사항으로 보아 강릉은 당시 유림의 본거지였고 반동학군을 지휘한 사람은 이원희였다. 이원희는 동학혁명군 진압에 공이 많았다 하여 조정에서는 강릉 부사의 관직을 내렸다. 당시 「동학당정토인록」(東學黨征討人錄)에는 이천(伊川)군의 순무사(巡撫使)였던 이언묵(李彦默)과 김도환(金道煥), 삼척의 김헌경(金憲卿), 강릉의 원세중(元世重) 최돈민(崔燉珉) 최오집(崔午集) 박동의(朴東儀) 강주서(姜渭瑞), 양양의 김익제(金翼濟) 노정수(盧鼎秀) 장혁주(張赫周) 김준수(金儁秀) 최주하(崔周河), 횡성의 정준시(鄭駿時) 평창의 김충근(金忠根) 원주의 이철화(李哲和)등이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은 영월·평창·정선·강릉 이외에도 삼척 양양·이천 등지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에 기재된 강원도내 반동학군은 관동소모장 김태진(金太鎭 : 인계군수) 이천 장교(將校) 이언묵(李彦默) 이천 장교 이시점(李時漸) 관동소모진군관(關東召陣軍官) 이시영(李時榮) 황기정(黃基鼎)이고 원주의 진사 이철화(李哲和·의여장), 평창의 김충근(金忠根 : 동학군 포두 成文煥을 고발 체포), 양양의 유학(幼學) 이국범(李國範) 이석범(李錫範 : 국범의 백형) 강릉의 민보장(民葆長) 이수해(李守海) 강릉의 수교(首校) 이진석(李震錫) 평창의 군교(軍校) 문도순(文道淳) 등이었다. 당시 반동학군에 가담하여 지휘를 맡았던 인물이 이처럼 많았던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강원지방의 동학혁명군세가 여간 크지 않았던가를 반증해 준다.

영동지방의 동학혁명군 활동은 영서지방의 동학혁명군과는 별도로 먼저 일어난 것이지만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은 상호 연계되어 있었다. 다만 통신이 발달되지 않고 교통이 불편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풍암리(豊岩里)의 동학혁명

안으로는 부패와 모순된 시정(施政)의 개혁을 주장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帝國主義)에 항거한 동학운동은 반봉건운동(反封建運動) 반제국운동(反帝國運動)의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 근대 민족운동으로서의 동학운동은 고부(古阜)에서 동학도들이 앞장서서 일으킨 반란(反亂)에서 출발했다. 동학혁명운동 당시에는 동학란(東學亂)이라고 표기했다. 동학란이 동학혁명(운동)이라는 명칭을 얻기까지는 70여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1894년 3월 21일 전봉준(全奉準)이 동학혁명군을 이끌고 고부의 백산(白山)을 점거한 후 동도대장(東徒大將)으로 추대되어 동학혁명군의 항쟁은 시작된다. 9월에 접어들어 삼예(參禮)에 집결한 남접(南接)의 수만 군과 청산(靑山)에 집결한 북접(北接)의 수만 군은 10월 중순에 논산(論山)에서 합세했다.

청산대회(靑山大會 : 우구군 청산면)에서 북접 교도와 남접 교도가 동학운동에 합칠 것을 결의했다. 청산대회에 참여한 북접교도의 수는 수만명이었다. 강원도 지역은 북접교도에 속했다. 청산대회에 원주(原州) 방면에서 2백여명의 교도가 참가했었다.

당시 청산대회에 참가하여 동학군(東學軍)의 책임을 맡은 강원지방의 인물은 원주에 이화경(李和卿) 임순화(林淳化), 횡성에 윤면호(尹冕鎬), 홍천에 차기석(車基錫) 심상현(沈相賢) 오창섭(吳昌燮) 등으로, 더불어 기포(起包)했다고 「천도교창건사」에 밝혀져 있다. 청산대회에서 동학혁명군의 기포(起包)를 지령받은 교도들은 동학교도와 농민을 규합하여 당시의 정부군과 양반 그리고 일본군 토벌전에 나섰다.

처음 청산대회에 모일 것을 지령한 것은 9월 18일이었고, 청산대회에서 조직적인 활동의 지령을 받은 것은 9월 20일경이었다. 실제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0월이었다. 홍천(洪川)지역에서의 전투는 10월 21일과 22일에 일어났다.(「천도교창건사」에 나오는 일자는 모두 음력이고, 홍천지역의 전투일인 10월 21일은 양력으로 11월 18일이었다.)

당시 원주·홍천·횡성 등지에서의 동학혁명군의 활동을 「갑오실기」(甲午實記)에서는 『관동지방에서도 역시 비적들이 출몰하고 있고 횡성현감 유동근이 토포사를 겸했다.』(關東亦有匪類出沒云 橫城縣監柳東根 既兼討捕使)라 했고 『소모관 맹영재가 첩보를 올리기를 원주의 비적두목은 김화보』(召募官孟英在諜報 原州匪魁金化甫)라 했다. 『소모관 맹영재는 첩보를 올렸다. 지난 10월 21일 행군하여 홍천 장야촌에서 비적 30여명을 살해하고 다음날 서석면으로 향했으며 비적의 무리는 1천여명』(召募官孟英在所報 則去十月二十日行軍到洪川長野村 捕殺匪類三十餘名 翌日轉向瑞石面 則匪徒數千餘名)이라고 했다. 즉 관동지방(강원도 전역을 관동지방이라고 한다)에서도 비적(동학교도·동학군)이 출몰했다는 것과 횡성현감 유동근이 토포사를 겸하게 했다는 것이다. 소모관 맹영재가 10월 21일 행군했고 홍천 장야촌에 도착하여 비적(동학군) 30여명을 싸죽였다. 다음날 서석면으로 진격했다는 것이었다. 비적(동학군)은 1천여명이었다고 기록으로 남겼다.

원주·횡성·홍천 등지에서 동학군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동학교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1869년에 동학교가 강원도내에 전파된 후부터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실로 25년동안 제2세 교조 최시형에 의해 강원도 일원이 동학교 포교의 근원지가 되었다. 제1세 교조 최제우의 신원운동 때는 관동대접주로 이철우가 임명되었고, 홍천에 차기석 인제에 김치운 등으로 본포(本包)를 설치하게 되었다. 도소의 접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최시형 제2세 교조가 강원도내에서 포교하는 동안 양양의 최혜근 김경서 이일여, 영월에 박용걸 노정근, 인제에 김병정 김현수 조시철 김연호·이명수, 정선에 유인상 전성문·김해성 철(수좌) 유시헌, 간성에 김하도 등이 동학포교에 직접 참여했거나 그들의 집을 포교 장소로 제공했었던 것이다. 동학 포교에 큰 역할을 했던 강원도내의 중요 인물들로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동학혁명 당시의 각 지역 기포(起包)와 인수(또는 포수)를 보면 강원도내에는 원주에 2명 횡성에 1명 홍천에 2명, 합계 5명으로 되어 있다. 당시 경기도가 안성 양지 2명 1명 여주 3명 이천 3명 양근 1명 지평 2명 광주 2명 합계 14인에 비하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다. 전라도가 합계 203명, 충청도가 합계 56명, 경상도가 합계 6명, 황해도가 합계 20명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강원도의 기포는 원주·횡성·홍천에 설치되었고 인근 지역인 경기도의 여주·이천·양근·지평·광주(廣州) 등지는 강원

도의 기포와 연결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에서의 동학혁명전투는 이상과 같은 역사적·지리적 바탕에서 치루어졌다.

『천도교창건사』에는 동란(東亂)이 일어난 동기와 동란의 효과와 그 실패의 원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갑오동란의 동기, 여기에는 대개 세가지의 원인이 있으니 첫째는 도인의 세상에 대한 희망이니 당시의 일반도중은 대신사의 가르친바 지상신선의 세상, 즉 지상천국의 이상이 그들의 무엇보다도 요구하는 새 세상 배판(排判)이었으므로 일거에 정부를 개혁하고 자기네의 이상을 실현코자 함이 그 무거운 원인이며 둘째는 계급의식이니 동학의 사상은 근본부터 인내천이며 인내천은 실행에서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나타나고 사인여천은 자유평등의 표어이었으므로 당시의 귀천반상의 별이 심한데 자극된 도인들은 의식적으로 계급사상 타파를 목적인 계급의식이 발달되었다. 당시 동학의 어(語)에 삼불입(三不入)이라는 말이 있으니 삼불입은 반불입(班不入) 부불입(富不入) 사불입(士不入)을 이룸이니 이 3계급은 동학에 들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계급의식을 양성케 하였는지 가히(可知)할지라 그런 계급의식의 불길은 그들로 하여금 평등의 세계를 열고자 하는 혁신사상을 길렀던 것이다. 셋째 관리의 압박이니 이것은 직접 원인의 가장 무거운 동기이었다.

갑오동란의 효과로 말하면 첫째 개화사상(開化思想)의 타개(打開)로 볼수 있으니 동방 처녀국(東方處女國)으로 있던 조선이 동란의 동기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백성의 귀가 열리게 되며 이어 청일전쟁(淸日戰爭)의 풍운으로 처녀의 꿈이 깨어지고 개화문명이라는 말을 부르게 되었다. 조정에서도 이때부터 백성을 천대함이 불가능한 줄 알고 을미경장(乙未更張)으로 정치를 혁신하는 동시에 칠반천역(七般賤役)을 해방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둘째는 민중운동의 표시이니 현대식의 자유평등의 민중운동은 불란서혁명과 같이 갑오동학당의 혁명운동이 순민중적(純民衆的) 의미에서의 가치가 있고 조선 4천년 역사 가운데 산민중이 있는 표시를 이 운동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봉건계급의 타파이니 조선의 봉건적 사상인 반상의 구별이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화(下火)가 되어 드디어 동학란 제2대운동인 갑진혁신(甲辰革新)에 의하여 영영 타파되었다.

갑오운동의 실패를 말하면 이는 말할것도 없이 외국의 내정간섭이며 동학당 내부가 일치해야 먼저 경성(京城) 직형(直衡)치 아니하고 충청일대에서는 그해 9월에야 겨우 의거해야 대세를 잃은 것이 그의 원인이었다.』

동학혁명의 동기·효과·실패 등은 원주·횡성·홍천 등지에서조차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이 화경·임순화·윤면호·차기석·심상현·오창섭 등이 지도하던 홍천지방의 동학군은 경기도의 동학군과 합세하여 홍천읍에 집결했다. 이때의 동학군세는 1천여명에 달했다. 홍천군 장야촌에서 첫 전투를 치렀다. 이때 동학군을 토벌하던 반동학군은 소위 의여(義旅)라 하여 관군을 지휘하던 사람은 양평(당시 지평)의 맹영재(孟英在)였었다. 그는 동학혁명을 진압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지평현감(砥平縣監)이 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춘천의 을미의병 때 지원군을 요청하러 갔던 춘천의병대장 이소응(李昭應)을 감금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강원 홍천지방의 동학혁명운동과 춘천지방의 의병운동을 와해시킨 인물이었다. 그

런 인물이었던 만큼 맹영재가 이끄는 관군에 동학군이 당할 수가 없었다. 동학군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구성되었었다. 그래서 숫적으로 동학군이 우세하였지만 조직과 화약과 무기에서 역부족이었다. 동학군은 패퇴할 수 밖에 없었다.

홍천군 화촌면 장야촌(장평)에서 전투를 벌인 동학군은 후퇴하여 서석면으로 들어갔다.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 전투에서 8백여명의 전사자를 낸 동학군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동학실기」에 홍천 장야촌에서 동학군 30여명이 포살되었다고 했다. 홍천군 장야촌은 지금의 화촌면 장평리. 『내면(內面)의 동학 수령 차기석과 접주 박종백(朴鍾伯)이 10월 11일 동학군 1천여명을 이끌고 동창(東倉)마을을 습격하고 강릉으로 전향한다』는 홍천현감의 보고가 있었다고 한우근(韓洵勅)의 「동학과 농민봉기」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동학수령에 차기석 접주에 박종백등이 밝혀짐으로써 실세의 일부가 밝혀진 셈이다. 청산집회에 모였던 원주·횡성·홍천 등지의 동학 지도자들이 홍천지역에서의 전투에서 지휘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맹영재가 올린 관보에는 『백기를 꽂고 진을 치고 있던 동학군에 총을 쏘아 접전하니 탄환에 맞아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다』라고 했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한편에서는 관군이 포살할 대상으로 동학군을 낙인 찍고 있고, 한편으로는 동학군이 약탈자 비적(匪賊)으로 묘사되어 있다.

홍천 장야촌 전투와 풍암리 전투 그리고 동창리 전투는 이 이상 자세한 기록이 없다. 그것은 당시의 기록이 관보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동학교 편에서는 거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는 다섯 방면으로 길이 트였다. 홍천에서 동면 속초(東草)리로 들어가는 길과 구성포(九城浦)에서 군업(君業)교를 건너 솔치고개를 넘는 길이 있다. 성산(城山)리에서 와야(瓦野)리 동창(東倉)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또 풍암리에서 먼드래재 쪽으로 빠져 원주로 나가기도 하고 조가동·구방·광수동으로 나가 진부(珍富)로 통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신작로가 개설되지 않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두에는 풍암리와 동창리는 영동과 영서의 길목이었다. 즉 인제와 양양·평창과 강릉·원주와 횡성·홍천읍과 춘천으로 통하는 교통 중심지였다. 특히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으므로 동해안의 어물과 해조, 그리고 소금과 내륙지방의 포목 특산물이 운반되는 길목이 되었다.

또한 동창리 풍암리로 이어지는 길은 최시형이 전도하던 길이였다. 양양읍 간성읍에서 인제군 갑둔리로 나오는 큰길 또는 오솔길이 홍천군 장평리~풍암리로 동창리~풍암리로 연결되었다. 다시 이 길은 횡성군 강림리로 나가고 다시 원주군·영월군·정선군으로 연결되었다. 이 길은 동학포교의 길, 동학의 길이 되었다. 홍천군에서 동학혁명군과 맹영재가 이끌던 관군과 의여(義旅)가 결전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장야촌에서의 전투에서 30여명의 동학군이 포살되었고 풍암리의 전투에서는 8백여명이 사살되었다. 풍암리 뒷산 앞으막한 고개를 자작고개라 한다. 여기에서 진을 치고 싸우다 죽은 동학교도들이 자작고개에 묻혔고, 시체가 썩어 땅이 내려앉아서 자자진 고개라 하여 자작고개라

불렀다. 자작고개 옆에는 성황당이 세워져 있어 한많은 죽음을 당한 동학교도들의 혼을 위로하는 곳이 되기도 했다. 풍암리의 진등은 동학군이 진을 쳤다고 해서 진등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진등을 동북편에서의 고양산 아미산이 내려다 보고 있다. 자작고개는 이 진등이 고개를 가리킨다. 풍암 남쪽에 있는 군두리(軍杜里)는 상군두리 하군두리로 되어 있는데 동학·의병난리 때 군인들이 주둔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등이고개(자작고개) 진등 군두리 등은 동학혁명전과 의병항전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풍암리를 중심으로 서석면 일대의 마을에는 음력 10월 20일을 전후해서 제사를 올리는 집안이 많다. 엄정삼(嚴正三)·엄맹삼(嚴孟三)·엄현삼(嚴鉉三)·홍영철·고덕용(高德容)·김유심(金有心)·서충보(徐忠輔) 고씨·최씨(2명)·김씨(3명)·이씨·박씨·황씨등이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중에서 극히 일부 알려진 사람들이다. 1980년 필자의 현장답사에서 그 당시 희생당한 사람중 16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으므로 제사를 올리는 가정에서도 성씨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풍암리 주민이 아닌 경우는 전연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 한꺼번에 가족 모두가 죽음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풍암리의 지주였던 최병두(崔炳頭)의 경우는 그와 가족 8명이 희생당하기도 했다. 풍암리 동남쪽에 피리골이라는 계곡이 있다. 풍암리 사람들은 동학군이 피리를 불면서 토벌군의 내습을 알렸기 때문에 피리골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홍천읍과 속초리 풍암리·동창리·장평리 등이 동학혁명군의 전투와 관련이 있었던 지역이다.

동학혁명군은 8백명(혹은 1천여명)이나 희생당하였지만 앞에 든 사람 이외에는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다. 차기석·심상현·오창섭·이화경·임순화·윤면호 등이 풍암리 전투에 참가하여 지휘하였을 것이 확실하고, 앞에 든 제사를 올리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희생자로 밝혀진 명단의 전부이다. 당시 풍암리전투의 토벌군으로 참여한 맹영재등은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 동학혁명군 측에서는 이름을 밝혀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동학혁명군의 명단이 밝혀지면 관군이 달려들어 체포하고 고문하여 죽일 것이 틀림 없었으므로 동학교도의 이름은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다. 접주의 지휘부만 그 구성원을 알 수 있었고 동학교도들은 점조적으로 되어 서로 누가 교도인가를 잘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숨어서 전도하고 숨어서 열었기 때문에 언제 관가에 발각될지도 모르므로 동학교도의 명단은 결코 밝혀지지도 않았고 밝혀질 수도 없었던 것이다.

홍천군 내촌면 동창리의 동학교도였던 김덕원(金德元) 전성렬(全性烈)등의 이름이 풍암리싸움에 참전했던 사람 명단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다. 김덕원은 당시 19세, 열혈청년이였다. 45세 되던 1919년 4월 2일 동창리 기미만세운동의 주동이 되었던 지도자로서 천도교 장두였던 김덕원이 풍암리 동학혁명전에 앞장 섰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더구나 기미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김덕원은 동창리에서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방은 상민이나 천민이 운영하는 것이 상례였다. 지주로 또 사대부 집안에서 마방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 못한 일이었다. 즉 마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맞고 물품을 보관하고 왕래하는 길손을 접대하면서 동학교도의 연락장소로 활용한 것이다. 지주요 사대부 집안에서 굳이 마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마방

을 운영했던 것은 외부인사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동학교도가 의심받지 않고 연락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적한 시골, 산골마을에서는 그 방법이 최선의 길이었다. 그래서 동학교도의 연락장소 거점장소를 만드는 방안으로 마방을 운영했다. 김덕원이 마방의 주인이 된 것은 동학교도의 평등사상 인내천사상에 투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방의 주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동학교도였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19세의 청년 동학교도인 김덕원은 차기석과 박종백이 10월 11일 동창마을의 포(布) 목(木) 어(魚) 광(靛) 화(貨) 우(羽) 등을 보관한 동창(東倉 : 흥천지방에 있던 나라의 창고)을 습격, 동학혁명군의 군자금 군수품을 확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1894년 10월 11일에 동학수령 차기석과 접주 박종백이 동창의 재화(財貨)를 확보한 것이며, 그보다 10일 후에는 그 재화들이 풍암리전투에 군자금 군량미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창마을이 고향인 김덕원이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투에 남달리 유리한 전략을 구상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장평리싸움과 풍암리 싸움이 있기전 동학군이 동창리싸움으로 군수품을 확보했던 전투과정이 김덕원과의 직결되어 있던 관계를 웅변해준다.

최시형 신사(神師)의 순도(殉道)

동학혁명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2세 교조 최시형의 발걸음은 강원도로 향했다. 『천도교창선사』에는 『갑오 12월 24일로 끝마친 동란의 여파로 나라에서 여당(餘黨)을 진멸(盡滅)코자 하여 위선 그 괴수되는 신사를 체포코저 각지에 수사망을 치고 천하에 영하야 대색(大索)하는지라 신사-손병희·손병흠·손천만·김연국 기인(畿人)으로 더불어 흥천에 잠유(暫留)하다가 을미 정월에 인제군 최영서(崔永瑞)가에 이르러 제인(諸人)에게 일러 갈고대 이때에 두령된 자 가히 한곳에 구유(久留)하지 못할지라 하시고……』라고 했다. 최시형은 인제군 최우범(崔馬範)가에 옮겼고 원주 수예촌(水禮村)으로도 옮겼다. 숨어서 포덕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포덕 39년(1898년) 1월 3일 신사 원주 전거언리(前巨彦里)에서 거하실세 노병으로 인하여 자리에 누워 일지 못하고 도제(徒第)중 삼암(三菴 : 손병희·손천만·김연국) 이하 두목이 항상 시척(侍側)하였었다. 하루는 마침 의암대도주-외수인이 병을 간호하고 있더니 문득 본즉 여주주재병(驪州駐在兵) 수십인이 도인 권성좌(權聖佐)를 결박하여 앞세우고 신사가에 돌입하는지라 이 광경을 당한 의암은……』

그 있던 곳이 탄로나자 최시형 일행은 그 곳을 빠져나와 그 이튿날 지평(砥平) 갈현(葛峴) 이강수(李康洙)가에 일박하고 다시 그 익일에 흥천군 서면 제일동(濟日洞) 오창섭(吳昌燮)가에 이르자 월여를 유하게 된다. 2월 그믐에 여주 임학선(林學善)의 주선으로 원주군 송동(松洞)으로 옮겼다. 이 송동(송골)에서 최시형은 체포된다. 저간의 상황을 『천도교창선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수년 전에 충청도 난류(亂類) 송경인(宋景仁)이란 자 경사(京師)에 두유하더니 조정에서 동학교수를 잡으면 고관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포도대장과 밀약하고 충주지방에 이르러 농업을 경영하며 가만히 도인의 유무를 탐지하더니 마침 동네에서 독신자 김모를 만나 입도한 후에 수도범절이 극진하니 김모 역시 의심이 없으므로 일차 장석(丈席)에 배알을 시키고자 하나 때는 일반도인에게 장석의 장소를 알리지 않고 비밀히 있던 터이라 김모가 선생의 거처를 사방으로 탐지하던 중에 마침 여주시장에 와서 입학선을 만났다. 3월 21일인즉 곧 신사의 생신이나 신사-특히 금년 생신은 음식을 전폐할터인즉 제군은 그리 알라 분부한 터이므로 공연히 생신예식은 거행치 못할지라도 제자된 도리에 거저 지날 수 없다 하여 그 이웃에 있는 도인 수명이 서로 공모하고 입학선을 여주시장에 보내어 이어(鯉魚)를 사게한 일이었다. 김모-입학선을 보고 선생의 거처를 물었으나 역시 모른다함에 부득이 돌아가고저 하던 차에 입학선의 큰 이어 사는 것을 보고 내심에 홀로 생각하되 내일이 선생의 생신이고 학선이 또한 대어(大魚)를 사는 것을 보면 필시 까닭이 있다 하고 가만히 뒤를 따라 선생의 소재를 알고 기뻐 돌아간 일이 있었다. 그러자 몇일 후 4월 5일 향예(享禮)를 당함에 문도중에 유수한 사람이 많이 모였더니 신사의 자-동희(東曦) 아동으로 더불어 유희하다가 아동에게 속여 일러 말하되 「병정이 우리집에 들어온다」 하거늘 신사-이 말을 들으시고 이것은 천어(天語)라 가히 심상히 듣지 못할 소리라 하시고 곧 의암(義菴)과 및 임순경(林淳瀾)·김연국(金演局)등 제인에게 일러 갈오대 「군등(君等)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 형예를 지내라고 한대 의암의 갈오대 「문제(門弟)된 자 비록 원지(遠地)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한곳에 회합하여 예식을 거행함이 가하거늘 어찌하여 돌아가기를 명하시나이까」 신사-갈오래 「내 생각한바 있으니 명을 어기지 말라」 하거늘 이에 제도인이 일제히 집으로 돌아갔었다.

이날 밤에 신사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새벽에 송경인이 경병(京兵)을 거느리고 신사를 체포하였다. 신사-경사(京師)로 향할세 문막점(門幕店)에 이르니 여주 도인 황경신(黃敬愼)이 신사-피촉되었다는 말을 듣고 음립추후(飲泣追後)함에 관예배(官隸輩) 황경신을 잡아 난타한데 신사 여성(慮聲) 대질(大叱)하야 갈오대 「무죄한 자를 타(打)함은 도리어 죄되나니 여배(汝輩)-천감(天鑑)을 불의(不畏)하느냐」한대 관예배 감히 행악하지 못하였다. 신사-경옥(京獄)에 피수(被囚)됨에 북접대도주(北接大徒主)-피촉(被捉)의 사(事)를 각포(各包)에 비보(飛報)하다.』

송골(지금의 원주군 호저면 고산리 송골마을)에 은신했다가 관에 체포됨으로써 제1세 교조로부터 38년 간의 숨어서 포덕하던 사업이 끝났다. 그때 손병희는 섬배(지금 원주군 소초면 의관리 윗섬배) 이화경(李和卿)의 집에 머물렀다. 섬배는 송골에서 5리가량 되는 곳이다. 김연국은 옥적리(지금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옥지기)에 있었다. 의암·구암등 최시형의 수제자들은 송골과는 10리 안팎의 지역에서 피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피신처가 홍천의 접주였던 오창섭가와 원주의 접주였던 이화경가였었다. 이때까지 원주와 홍천의 동학교 수령들이 자기 고장을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된다. 홍천 풍암리전투에 참전했던 대부분의 동학교도와 이 지역 지도자들이 풍암리전투에서 피신하여 최시형의 포덕사업

을 도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들은 또한 1919년 기미만세운동의 지도자가 되었고 자주독립의 정신을 북돋우고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최시형의 피난 길은 동학 교도들의 피신 피난의 길과 대동소이하였을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천도교도와 강원도내의 3.1운동

강원도내에서 1919년 3월 1일 이전에 서울의 3.1운동과 연락이 닿은 곳은 평강(平康)지역 뿐이었다. 천도교 본부의 안상덕(安相德)은 선언서 7백매를 2월 28일에 평강 천도교 교구에 전달했다. 평강 천도교구장 이태윤(李泰潤)은 김찬호(金瓚鎬)를 상경케 하고 철원·김화교구에 연락한다. 도내 배포가 급진전 되어 철원군에 교훈 최병훈(崔炳勳), 김화군·화천군에 채장숙(蔡章淑) 회양군·통천군에 김천일(金千鎰), 이천군에 장선처(張善處) 춘천에 임종한(林宗漢)·신윤철(申允喆)이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던 것이다. 평강군내에는 김창석(金昌錫)·김병철(金炳喆)·김동율(金東律)·권병식(權炳植)·최명구(崔明九)·최일용(崔一龍)·전용섭(全容燮)·권대철(權大喆)등이 맡아 전달했었다. 평강·김화·회양·이천·춘천·양구·화천·인제 등지에서 기미만세운동의 지도자로 참가한 천도교인들은 그 이름이 밝혀진 인물만도 수백명에 달한다.

강원도내 기미만세운동은 영서북부 영서남부 그리고 영동지방으로 분류하는 것이 관례인데 영서북부는 거의 천도교인에 의해서 기미만세운동이 주도되었다. 영서남부지방에 해당되는 흥천·횡성·원주·영월·평창·정선지역도 천도교도의 활약이 컸다.

흥천군의 기미만세운동에는 오창섭(吳昌燮)·김영옥(金永玉)·노동근(盧東根)·신학균(申學均)·김원봉(金源鳳)·최승혁(崔承赫)·허상무(許相茂)·허상용(許相容)·김덕원(金德元)·전성렬(全性烈) 등의 천도교지도자가 활약했다. 횡성군의 기미만세운동에는 이채일(李采一)·이동구(李東求)·최종하(崔宗河)·신재근(申在根)·강달회(姜達會)·강만향(姜萬馨)·장도훈(張道勳)·안경춘(安敬春)·김인경(金麟卿)·윤태환(尹泰煥)·강승문(姜勝文)·김연의(金演儀)·조상렬(趙尙烈)·김윤배(金允培)·전성수(全聖洙)·하영현(河永賢)·신경묵(辛敬默)·추병윤(秋秉倫) 등의 천도교 지도자가 활약했다. 원주에서는 횡성군 천도교 관련인사와 박영하(朴英夏)·신현철(申鉉喆)·유재경(柳在景)·김흥렬(金興烈)·심의성(沈宜聖)·신현성(申鉉成)·김현주(金顯珠)·김현홍(金顯弘)·서상균(徐相均) 등의 천도교 지도자들이 참가했다.

흥천의 오창섭 원주의 박영하등은 풍암리전투에 참가했던 인물이었으며 기미만세운동에도 주동이 되었다. 천도교도가 영서북부지역과 영서남부지역에서 기미만세운동의 주동이 되었던 사실은 이로서도 증명된다.

풍암리 동학혁명전투에 참가했던 김덕원은 후에 동학교도의 연락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거점으로 마방을 운영하였고, 그 주인이 되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기미만세운동이 그것이다. 동창마을의 지주였고 사대부였으며 의협심이 강했던 김

덕원은 자주독립운동의 주동자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동창리전투 품암리전투와 마방을 차렸던 때의 행적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다. 기미만세운동—동창마을의 기미만세운동의 주동이 되었던 때 그가 천도교의 장두가 되어 있었으며 또한 기미만세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현장 증언을 통해서 장막에 쌓였던 위대한 일생의 행적이 밝혀진 것이다. 김덕원의사의 일생은 천도교와 떼려야 뗄수없는 관계였고, 인내천사상으로 민족의 독립과 인간다움을 회복하려했던 지도자의 생애를 살았다. 위대한 천도교인의 일생이었다.